

세종

2025년 문집 제38호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교훈 세제로 미래로 나아가자 세종 꿈나무



세종학교 교가

조규홍 작사
박재훈 작곡

1. 대 - 한 의 어 린 이 들 이 - 곳 에 모 여 들 어 우 -
2. 너 - 와 나 손 을 잡 고 하 - 늘 을 지 고 이 어 한 -

리 들 길 - 러 내 어 문 화 오 천 년 기 리 빛 내 고 오 -
국 을 미 - 국 속 에 알 차 게 길 러 향 기 를 내 고 오 -

우 리 는 미 쉼 간 - 에 자 랑 스 런 세 - 종 의 열 빛

내 리 세 종 학 교 빛 - 내 리 세 종 학 교

세종학교 교육목적

재미 한국인의 후예들로 하여금 성숙하고 창조적인 삶을 향유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우리 겨레의 순수한 전통과 우수한 정신문화를 접하도록 교육시키며 이를 통하여 세종의 얼을 배우고 받아들여 전통 있는 민족의 긍지를 갖추도록 한다.

세종학교 각종행사

1. 학생 특별활동: 친구 클럽, K-rise 클럽, 세종뉴스레터클럽, 프로젝트-K 클럽을 통해 학생들은 취미에 맞는 클럽을 찾아 참여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 강연 및 연수회: 매 학기 교내 교사 연수회, 미시간 한국학교 협의회와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등 대외적인 강연과 연수회를 실시하고, 참가하여 보다 진보된 교육의 풍토를 세종학교 교사들의 수업 다양화에도 힘쓰고 있다.
3. 각종행사: 한국어 이야기 대회와 동요 부르기 대회, 글짓기 대회, 역사 문화 골든벨 퀴즈 등을 개최하여 미시간 주최의 여러 대회에서 각종 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교내에서도 다양한 대회로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4. 태극마을 위문 공연: 1990년부터 새해 1월이면 새해 맞이 잔치를 하여 연장자들이 사시는 아파트인 태극 마을을 방문하여 웃어른께 세배를 드리고 위문 공연도 준비하여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5. 세종문집: 1986년부터 발간되어 해마다 학생 작품 등이 실려 나오고 15, 20, 25, 30, 50주년 특집호가 발간되었다.
6. 세종예술제: 1972년 6월부터 한 학년이 끝나는 6월에 학예 발표회식으로 학부모들을 모시고 세종예술제를 열고 있다.
7. 종, 졸업식 및 야유회: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로 수료증, 졸업증, 학습보고서, 상장을 수여하며 세종문집을 배부한다. 식후 야유회를 개최하며 학부모님을 비롯 하여 인근의 입양아 가족도 초대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교장 김선미



토끼반 박진희



나비반 이지영



개나리반 이선희



매화반 이윤경



난초반 1학기 이정희



난초반 2학기 노희정



무궁화반 이숙경



장미반 윤희란



해반 김정화



솔반 박문선



달반 노명숙



별반 이주현



하늘반 송미현



종달새반 황선미



신입반 수산나 호프



음악 박현우



미술 조수원



사물놀이 Torey Powers



태권도 황희찬



태권도 황희민



무용 김소현



재무 양승렬

인사말 6

토끼반 8

나비반 15

개나리반 24

매화반 31

난초반 37

무궁화반 45

장미반 52

해 반 56

솔 반 61

달 반 67

별 반 73

하늘반 77

신입반 85

종달새반 88

음악 90

미술 92

무용 94

태권도 96

사물놀이/난타 97

졸업생의 글 98

특별활동 101

대회수상자 104

사진모음 106

발행인: 김선미
편집인: 한수경
발행일: 2025년 5월
발행처: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파란 하늘 아래 세종학교는



교장 김선미

세종학교는 항상 그렇습니다. 세종학교는 항상 학생들과 함께 합니다. 세종학교는 항상 모든 중심을 학생에 두고 생각합니다. 잠깐의 이득을 생각하고 세종학교 학생들에게 주어질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잃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때때로 무엇이 가장 학생들을 위하는 일일까 혼란스러운 생각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주어질 한국학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그 중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세종학교의 제38호 문집을 내며 다시 한번 세종학교가 가고 있는 길을 생각해 봅니다.

1972년 이래 많은 학생들이 세종학교를 거쳐갔습니다. 그들에게 세종학교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일상적으로 영위하는 하루하루에서 세종학교가 그들에게 준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결코 눈에 보이는 그 뚜렷한 무언가 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 어딘가 세종학교를 통해 자신 삶의 역사가 한 페이지 아니 한 줄이라도 남았으리라 생각하고 그런 증거들이 세종학교 역사에도 또한 구석구석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는 세종문집 제38호가 바로 그 역사의 기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훌륭한 우리 세종학교 학생들이 이전의 역사로 쌓아진 그들의 사진이나 글자 하나하나가 먼 훗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멋진 기록물로 영원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종학교를 거쳐간 역사의 조각들로 세종학교 학생 모두의 삶이 한 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세종학교의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갔다고 생각합니다. 세종학교의 역사가 더해지고 세종학교의 역사와 함께 선생님으로서 세종학교의 역사에 함께 할 수 있었음은 제 개인으로서 큰 기쁨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세종학교와 함께 하면서 만났던 많은 학생들의 성장을 함께 하였고 함께한 훌륭한 동료 교사들을 통해 또 훌륭하신 여러 학부모님을 통해 배우며 부족함이 많은 제 개인이 인간으로도 발전할 수 있었음에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세종학교는 특별합니다. 53년이 넘는 한국학교의 역사로만이 아니라 또 대통령상을 수상한 한국학교로서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바로 훌륭한 여러분이 있었기에 세종학교는 특별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세종학교 오는 길은 항상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28년의 세종학교와 함께 했던 많은 기억들을 마음에 새기며 이 세상 어디에 있어도 세종학교와 함께 하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세종학교는 제게 설렘과 환희입니다.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올해 2024-2025학년도를 마감하며 여러분의 작품이 담긴 세종문집 38호가 더욱 뜻깊게 생각되는 순간입니다.

세종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종문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카고한국교육원
원장 송선진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가족 여러분, 세종문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생들이 세종학교를 다니면서 쌓아온 성장의 기록들이 온전히 담겨 있는 문집은 너무나도 값진 보물입니다. 문집에 실린 모든 작품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익히며 다져 온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은 물론 한국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겨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오랜 역사와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과 함께 최근에는 K-culture, K-pop, K-food, 노벨문학상 수상 등 한국의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수한 한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본인만의 꿈과 끼를 갈고 닦아 세계로 뻗어 나가길 바랍니다. 세종학교에 다니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세종대왕을 닮은 훌륭한 인재로 자라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 해 동안 매주 토요일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노력하며 성장해 온 학생 여러분께 진심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큰 리더십으로 세종학교를 이끌어 오신 김선미 교장선생님과 헌신적인 교사분들, 그리고 매 주말 시간을 내어 학생들을 보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0년이 넘는 오랜기간 동안 미시간주 재외동포들과 함께 성장해 온 세종학교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세종문집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
시카고한국교육원 원장 송선진



토끼반

교사 박진희

토끼반 친구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벌써 일 년을 채웠습니다.
 매주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선물 보따리처럼 풀어주던 사랑둥이들.
 가장 어린 반인 만큼 늘 드라마틱한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서 토요일 아침마다 출근하는 마음은 항상 긴장과 기대로 두근거렸습니다.

세종학교 첫날 어색함과 낯센으로 표정이 굳어 있던 친구들이 한 주, 한 주 마음을 열고 다가와주는 고마움과 감동.. 그리고 이제 막 엄마 아빠의 품으로부터 벗어나 무럭무럭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음은 저에게 큰 행복과 보람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은 등교하자마자 숙제를 꺼내 제출하고, 혼자서 도시락을 먹은 후 정리도 하고,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서 버리고, 자신의 물건을 모아 가방을 싸고, 줄을 서서 순서를 지킬 줄 아는 멋진 친구들로 성장했어요.
 수업 중에 도움부터 요청하던 처음과 달리 이제 혼자서 한글 연습지를 척척 완성하고, 다음 페이지까지 다 완성하고 기다립니다. 자신이 아는 글자가 나오면 세상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교실을 가득 채웁니다. 한글 게임을 마치고 나면 먼저 나서서 선생님을 도와 정리를 함께 해주고 준비물이 없는 친구들에겐 기꺼이 나누고 빌려주는 모습들 또한 흐뭇한 기억으로 새겨집니다.

아직은 몸짓과 표정, 그리고 노래와 그림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하지만, 앞으로 이곳 세종학교에서의 배움을 통해 한글과 한국어로도 자유롭게 표현하며 한국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키워 나가는 멋진 어린이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일 년 동안 아낌없는 응원과 믿음을 보내주신 토끼반 부모님들께도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친구들과 함께
 노는게 즐거워요.

세종학교 토끼반 이름 김다누



세종학교 토끼반 이름 김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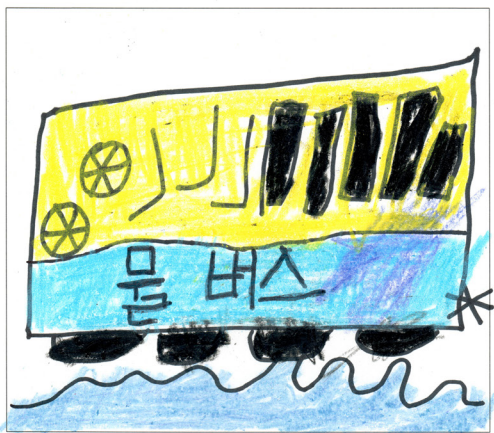


세종학교 토끼반 이름 김제이



디즈니월드에서
초대바람났어

세종학교 토끼반 이름 김주비



물 위를 다니는 버스
부여 주류양물 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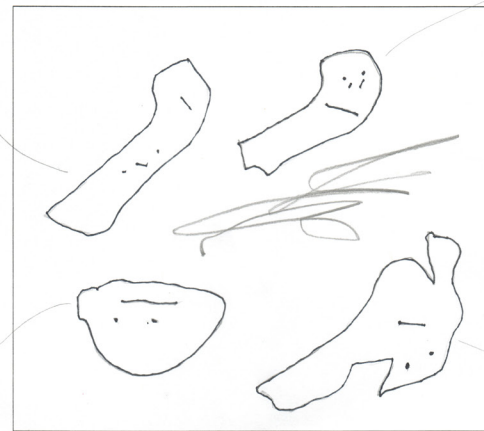
세종학교 토끼반 이름 박진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세종학교 토끼반 이름 손지오



우리가족

세종학교 토끼반 이름 손하윤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세종학교 토끼반 이름 윤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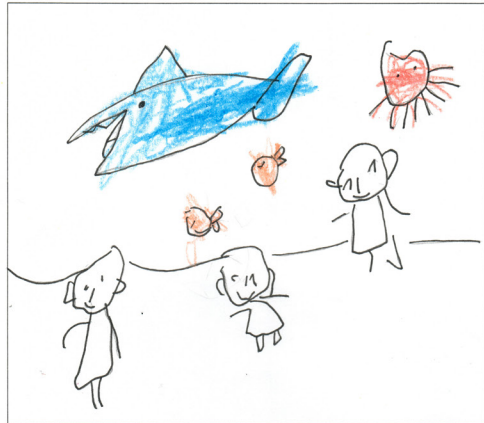


예쁜이도 꽃이 피어





세종학교 토끼반 이름 이승시



이국대강물에 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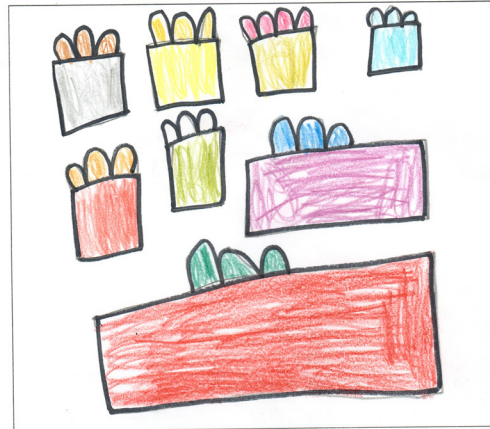
세종학교 토끼반 이름 이지원



마이애미 비치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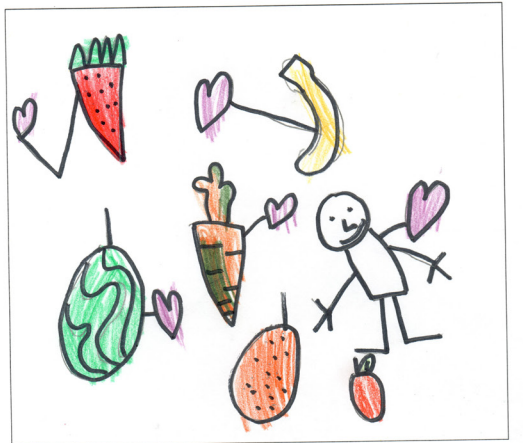
세종학교 토끼반 이름 임리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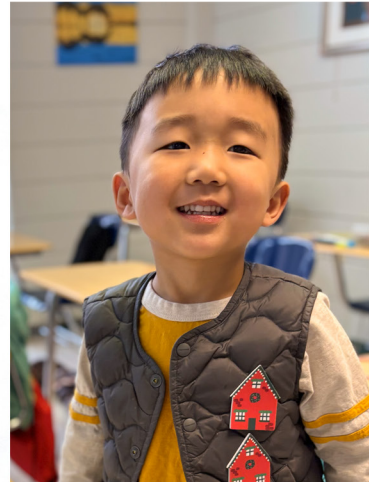
나는 선물이
너무 좋아요.



세종학교 토끼반 이름 임아린



나는 당근이 좋아요.
수박 딸기도 좋아요.





세종학교 토끼반 이름 **최유진**



내 아버탄생일파티.



나비반

교사 이지영

매주 토요일 마다 세종학교를 통해 만나는 나비반 친구들과의 시간이 처음에는 매우 낯설고 긴장되었지만 한주씩 지나갈 때 마다 아이들의 인사와 웃음소리가 저에게는 너무 따뜻하고 감동이었습니다. 처음에 한글을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는 아이들이 매주 한글시간을 통해 한글자씩 배워 나가고 알아가는 순간들이 저에게는 얼마나 보람되고 뿌듯했는지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열심에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미국문화권에 살면서 한글보다는 영어가 더 편한 아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글에 대한 열정으로 매주 토요일 이른 시간 보내주시는 부모님들의 격려와 사랑으로 우리 나비반이 처음보다는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보다 몸과 지혜, 지식이 성장해 나갈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음악시간과 체육시간을 통해 서도 아이들이 태권도, K-pop, 우리나라동요를 배울 수 있는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 동요 부르기 대회, 설날 세배, 김장체험 등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운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들은 아이들이 미국에서 한국인으로 자라나가는데 자긍심을 갖고 나아갈 너무 귀한 자산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이 세종학교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즐겁게 배우고 성장해 나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 매주 이른 토요일 마다 한글학교에 보내주시는 부모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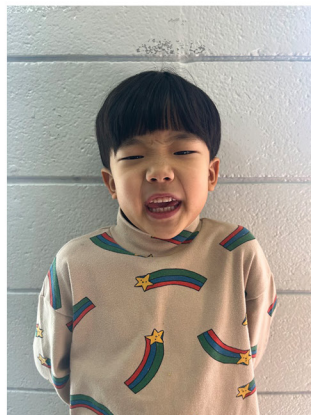
관공어! 가서 수영장이
있었어요



눈 사람을
만들었어요



나 는 방학 동안
엄마랑 친구들 하고
미술 수업을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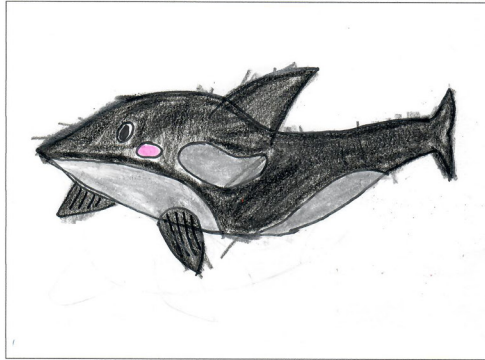
내가 플로리다에서 디즈니
월드에서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엄청 재미있었어요!



다시
내년 다문화 공원에서
도시락을 준비해서 소풍을
갔어요 오늘은 참 행복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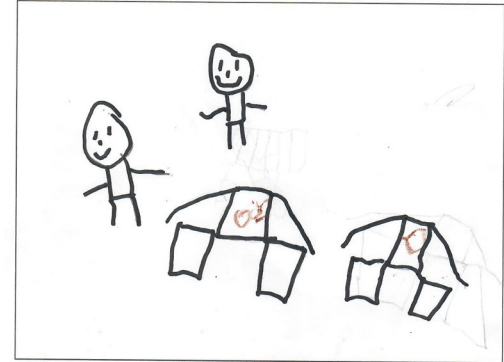
세종학교 나비반 이름 김지윤



저는 SEA WORLD 에 가서
바다를 보았습니다. 물고기와 바다
쿠기리도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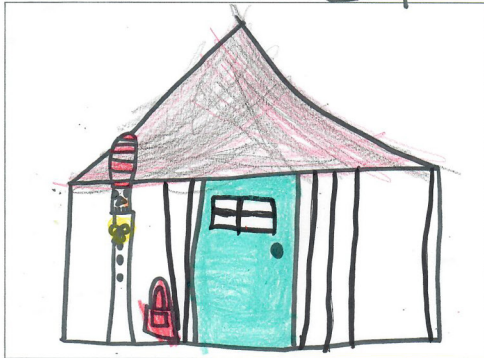
세종학교 나비반 이름 EHS



노아랑로봇을가고
놀았어요.



세종학교 나비반 이름 애슬리



문앞에 산타할아버지가
선물을 놓고갔어요. 마이멜로디
인형을 주셔서 너무 기뻐요.



세종학교 나비반 이름 김이아



엄마 아빠랑
맛있는 음식 먹었어요



세종학교 나비반 이름 김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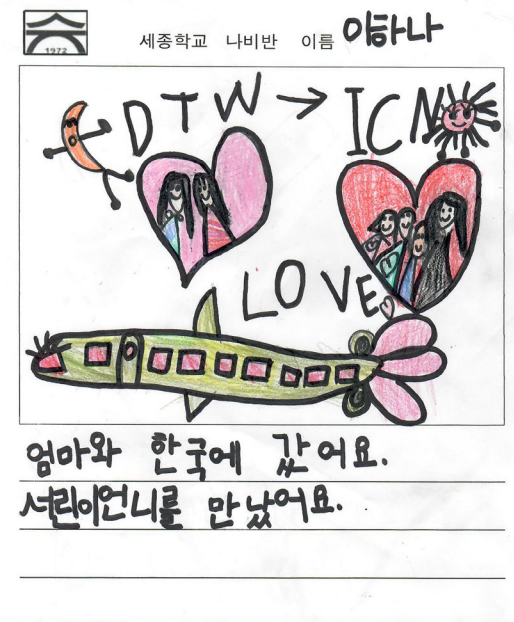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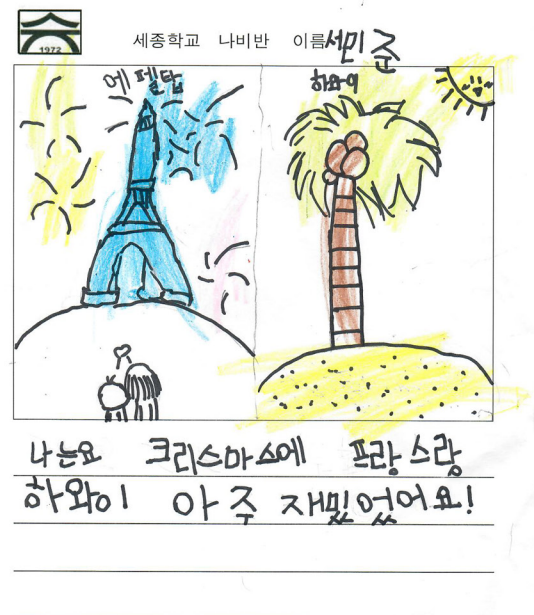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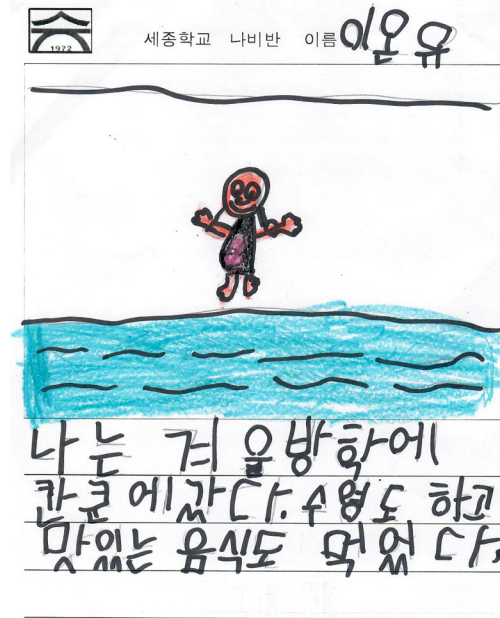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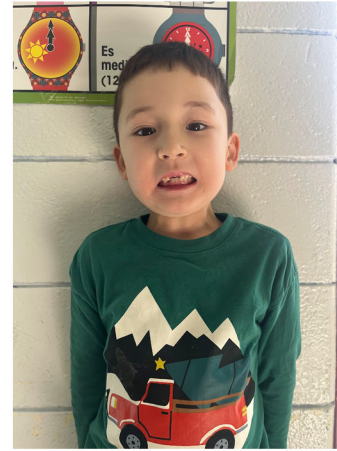
주말에 하나네
가족이랑 토끼 토끼
다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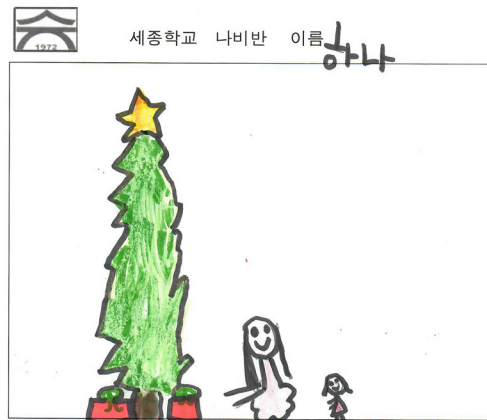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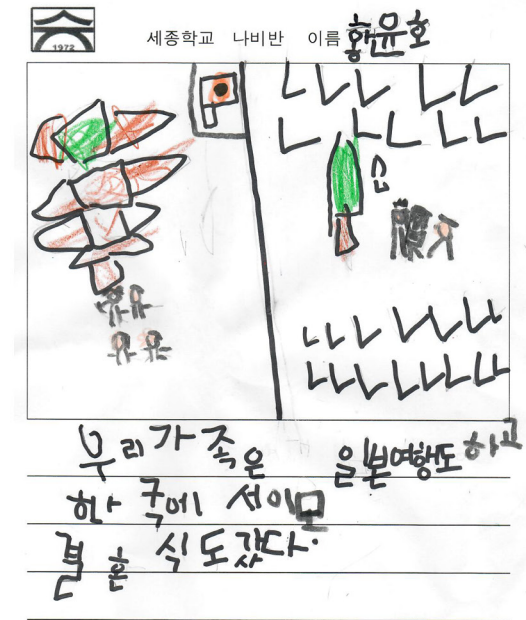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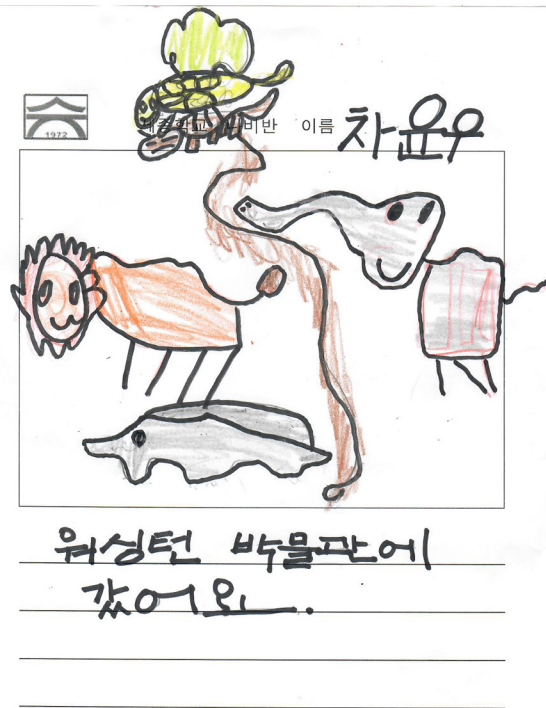


세종학교 나비반 이름 박이동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았어요.







개나리반

교사 이선희

저와 눈맞춤도 부끄러워했던 개나리반 친구들은 이제 저를 보면 손을 꼭 잡아주고 진한 포옹을 해줍니다. 수줍게 인사했던 첫날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우리 개나리반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친구들도 이제는 서로 함께 웃고 공부하며 정말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어 선생님은 우리 개나리반 친구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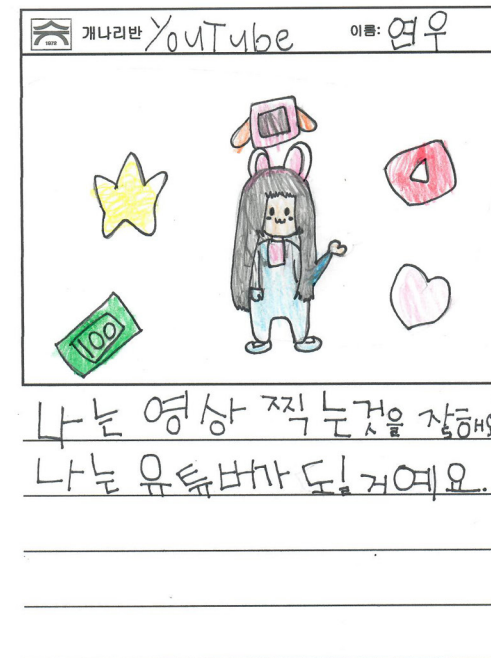
어떤 친구에게는 익숙하고, 또 다른 친구에게는 생소했을 한글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공부해나갈 수 있을까, 저 스스로도 고민이 많았고, 배우는 친구들에게도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나리반 친구들은 매주 토요일 만날 때마다 조금씩 더 자신감을 얻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서로 도와가며 함께 성장해왔는지를 지켜보면서 정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한글을 배우며 만나게 된 새로운 세상과, 친구들 사이에서 나누었던 웃음과 우정은 모두 개나리반 친구들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소중한 추억이 될 거라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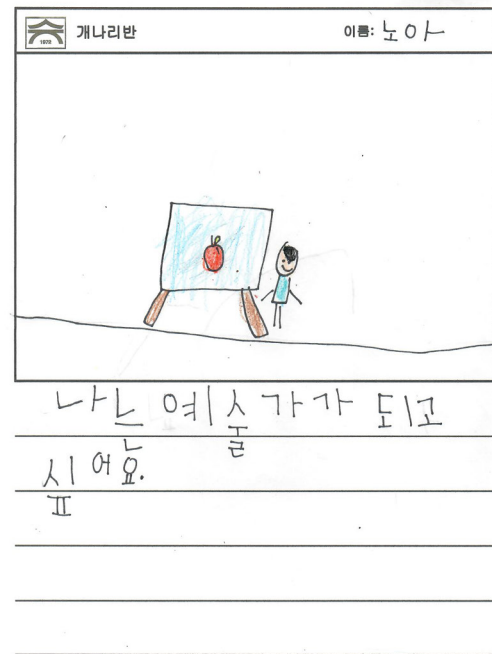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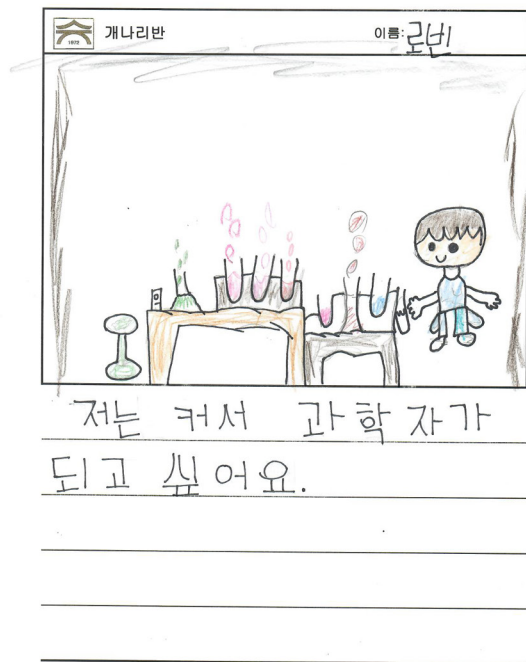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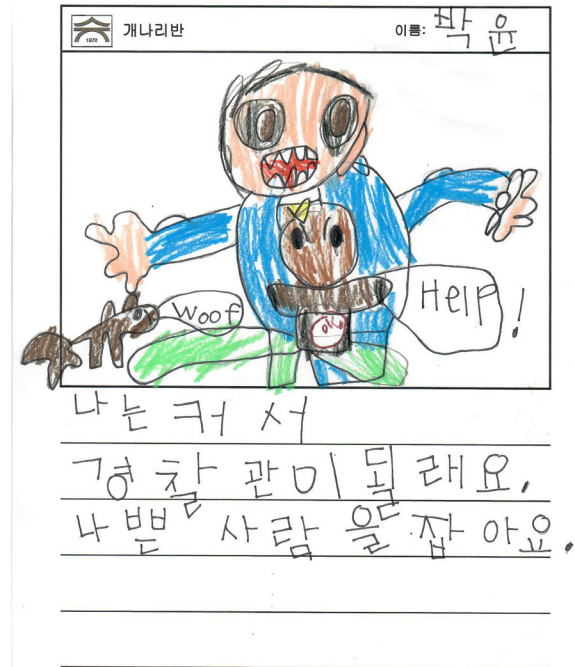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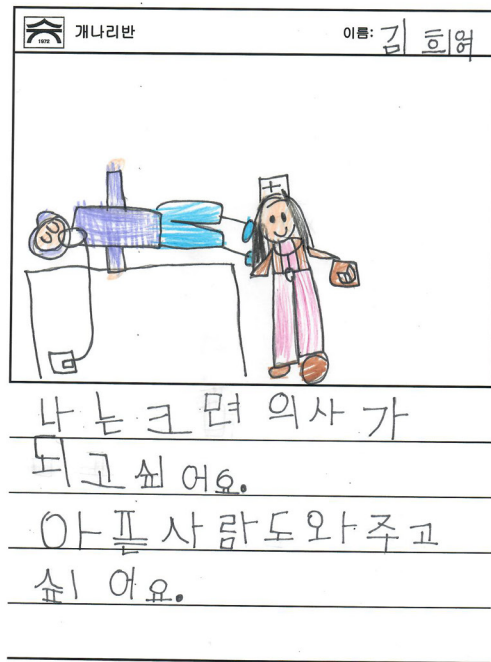
개나리반을 졸업한 후에도 친구들이 계속해서 한글을 사랑하고, 배우는 즐거움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며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자랑, 개나리반 친구들.

친구들의 웃는 얼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나눈 모든 순간들이 선생님께 정말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선생님께도 큰 선물이었답니다.

개나리반 친구들 모두 정말 수고 많았고, 예쁜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게 믿고 맡겨 주신 부모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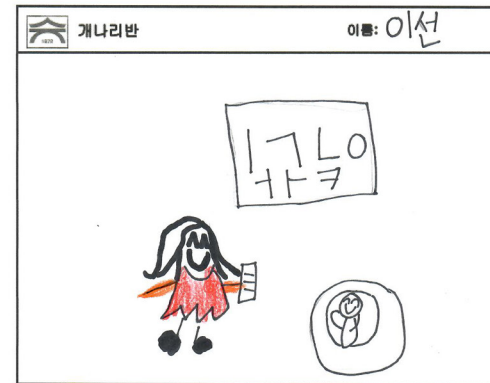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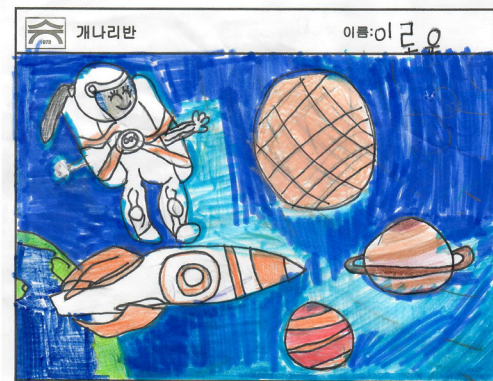
나는 아픈 사람을 치료
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말을 좋아해요. 저는 승마수가
되고 싶어요. 말을 타고 메달도 가지고 싶
어요. 내 말을 크리스탈 이라고 이름을
지을 거예요. 나는 말과 이야기를 하고,
말들을 훈련 시키고 싶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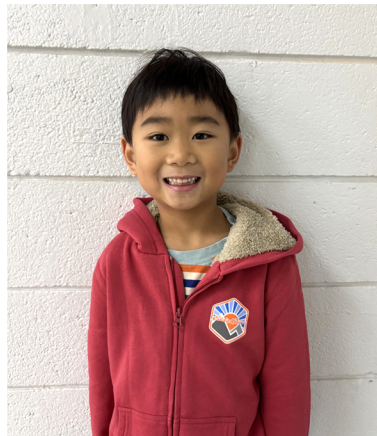
나는 책을 좋아합니다.
선생님이 될 거예요.



저는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어요.



나는 커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커서 경찰이 되고
싶어요. 나쁜 사람을
잡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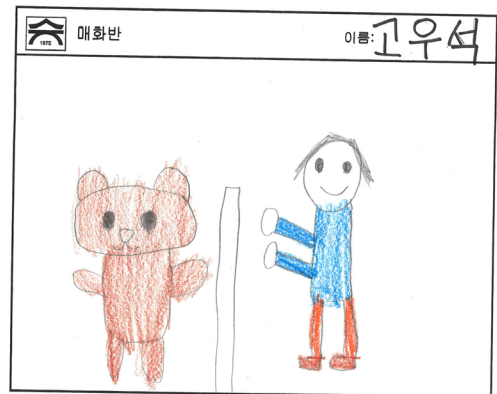


매화반

교사 이윤경

9월 새학기 첫날 매화반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의젓하구나 하고 저는 혼자만의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주부터 아이들은 본래의 모습으로 밝고 씩씩하고 장난꾸러기로 돌아왔어
요.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부시시한 모습으로 등교하는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서 수
업에 열심히 집중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쁩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서로 손들고 대답하려는 적극적인 아이들이 참 고맙습니다.
한국어가 좀 서툴고 힘들어도 끝까지 이야기하고 한글이 좀 어렵고 힘든 친구들
을 도와주고 배려해 주는 매화반 아이들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마음도 몸도 성장한 매화반 아이들이 즐거운 경험과 기억으로 더 밝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세종학교에서 한글과 한국 문화를 경
험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밝고 명랑한 매화반 아
이들이 제 마음에 오랫동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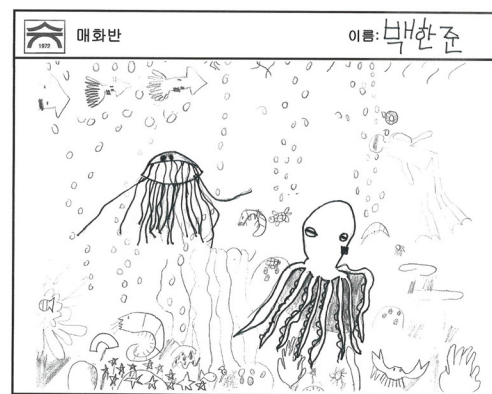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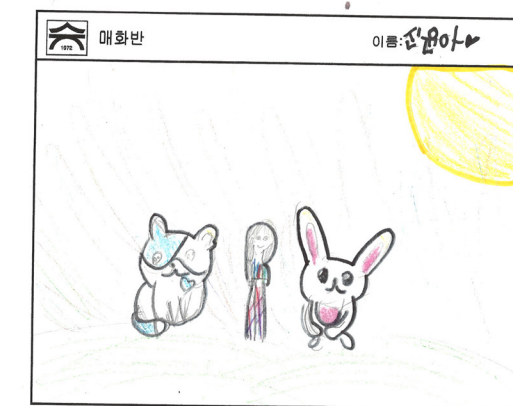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곰이에요. 왜냐하면
곰의 발이 귀여워서
요. 그리고 곰의 색이 갈
색이어서 좋아요.



나는 가젤라가 좋아요.
왜냐하면 강하고 멋진
다대문이에요.



나는 해파리와 문어를 좋아합니다.
해파리와 문어는 둘 다 다리가
많아서 신기해요. 해파리는 두뇌 있고
문어는 먹물을 뱉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해파리는 예쁘게 생겨서
더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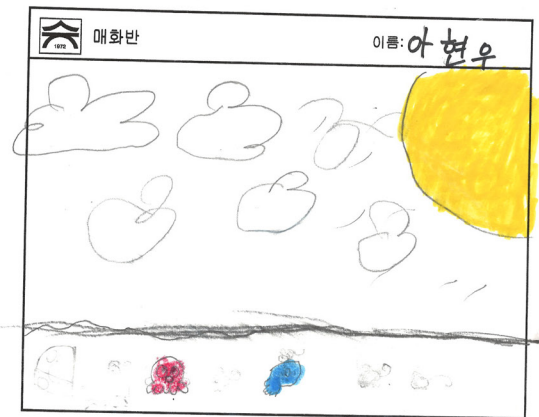


나는 토끼가 좋아요. 왜
냐면 귀여워 서요. 그리고
작아 서요. 그리고 고양이도
좋아해요. 왜냐면 보슬하고
귀여워서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강아지예요. 왜냐하면
강아지는 기여워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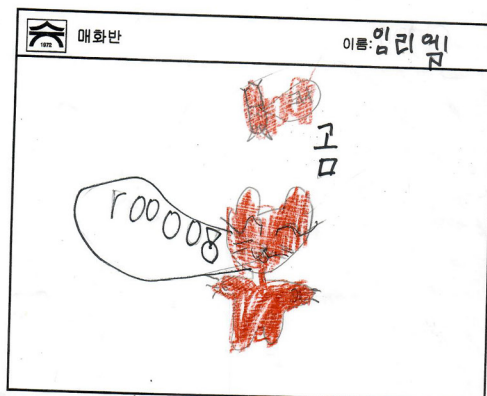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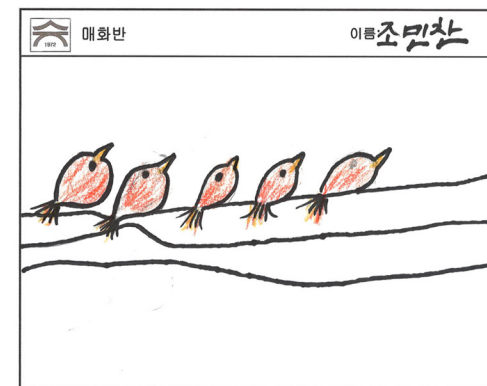
문어가 조아요 트기해서 조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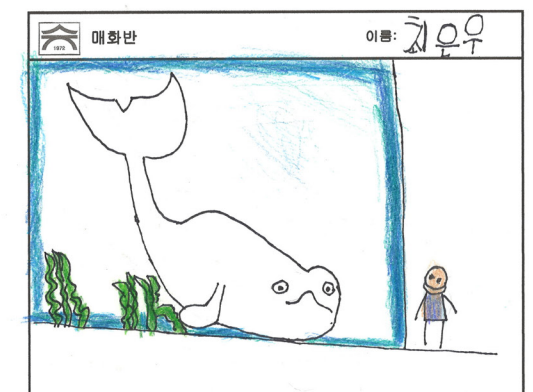
나는 치타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달리는
모습이 멋있고 빨라서
좋아해요.



나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공룡이에요. 왜냐
하면 귀여워요 그리고
예뻐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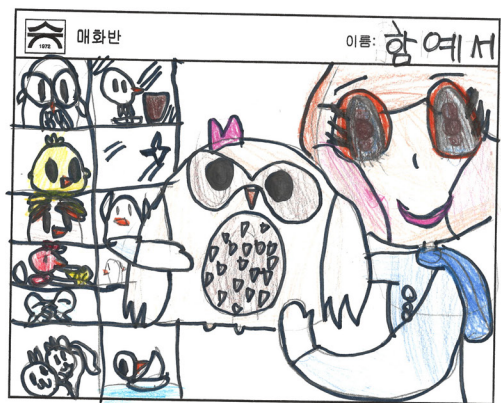
나는 새가 좋아요.
새는 하늘을 날아서 멋져요.
참새는 작고 귀여워서
좋아요. 나도 새처럼
날고 새처럼 살고 싶어요!



나는 벨루가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수영을 잘해요.
그리고 귀여워요. 입모양이
재미있게 생겼어요.



나는 벨루가 물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얀색 고래여서요,
또, 귀여워요.



저는 부엉이가 좋아
요 왜냐하면 보드랍고,
눈이 엄청 크고 귀엽고 머리가
쉽게 돌아가서 좋아요.



나는 햄스터가 좋아요 왜냐
하면 햄스터는 작고
귀여워서 내 품 안에
앉들어 가요. 언젠가
미우고 싶어요



난초반

1학기 교사 이성희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의 크기가 얼마나지 우리는 모두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둘 이상의 언어를 통달했을 때 보이는 세상의 크기와 문화의 다양성은 그 어떤 것보다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은 비록 아직 자라나고 있는 작은 새싹이지만, 그 크기를 가늠할 수도 없을 만큼 무한한 가능성과 다양한 기회를 가지고 수련된 나무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 기반에 세종에서 배운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언어 학습은 함께 노력하고 소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난초 반은 학급 내에서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과 교류 활동으로 흥미로운 수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언어는 문화와 깊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세종에서는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함께 탐험하며 언어의 배움과 함께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보낸 시간 동안 저 또한 배움의 기회였고 그만큼 성장하였습니다. 성실한 난초 반의 열정과 노력에 감탄했으며, 한국어를 배우는 여정에서 서로의 성장을 함께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더 나아가서 배운 것을 실생활에서 활용하고, 한국어로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끼길 바랍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한국어에 자긍심을 갖고 외국인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난초반

2학기 교사 노희정

2학기부터 난초반을 맡게 되면서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밝고 어여쁜 어린 학생들과 함께할 시간이 기다려졌고, 난초반 학생들에게 한글과 한국 문화가 즐거운 기억으로 자리잡기를, 그리하여 세종학교에서의 시간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품고 힘차게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것처럼 한국어를 잘 하는 아이, 한국어보다 영어가 편한 아이, 과제로 내준 것을 쉬는 시간 동안 다 해버리는 아이, 한 문장 쓰기까지 오랜 시간 고민하는 아이, 하지만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숙제를 들고 세종학교에 오는 아이까지. 그렇지만 제가 정말 기억하고 싶은 것은, 난초반 학생들이 모두 함께 모여 알록달록 고운 색깔의 한복을 입고 웃놀이를 하며 크게 웃고 떠들던 순간입니다. 미국에 온 첫 해, 처음으로 세종학교 선생님이 되어 만난 아이들의 얼굴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한국문화를 알아간다는 것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특히나 더 긴 여행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곁에서 늘 응원하고 격려해주시는 난초반 학부모님들의 노력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처음으로 세종학교 선생님이 되어 부족한 점이 많았을 저를 잘 따라준 난초반 학생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세종학교 난초반 이름 김예린

가난은 주지 않을 줄 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몸싸움
 하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어른이 될때 까지 계속
 할 것입니다.

세종학교 난초반 이름 김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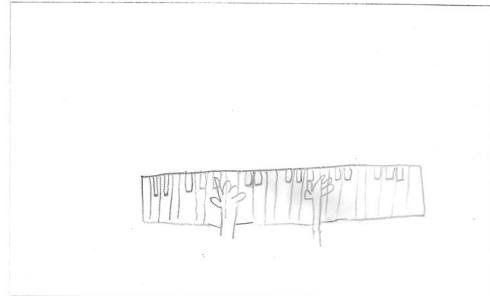
나는 하키를 잘해요. 그래서
 NHC 슈퍼스타 전수가
 되고 싶어요. 김이안은 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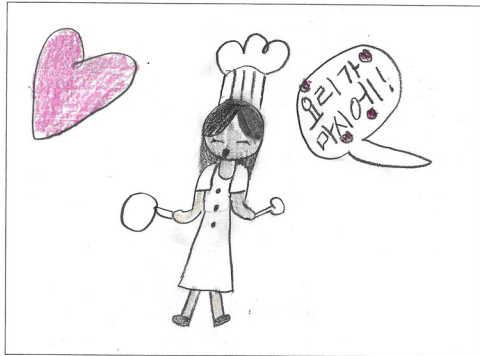
세종학교 난초반 이름: Lyaall 라연!

나, 로아, 소울이는 캠핑을 좋아 해요. 장
 난감을 드고와 세 같이 놀아요. 우리 는
 캠핑 한때 마다 아름다운 노을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밤에 먹는 마시알코가
 캠핑에서 제일 좋아요. 부활절에 가면
 숲속에서 달걀을 찾길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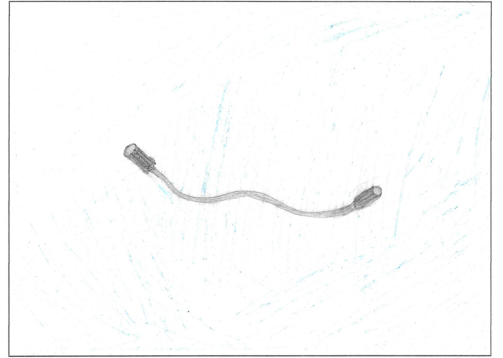




저는 피아노를 치는걸 좋아해요. 피아노
대위도 3번이나 나갔어요. 그때 2번이나
그림을 했어요. 처음에는 긴장하는대 다하구나
면 마음이 편해요. 저는 피아노를 좋아해요!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매야머지이엄마요리사예요.
기러서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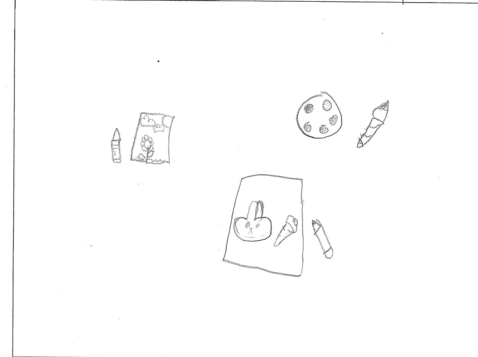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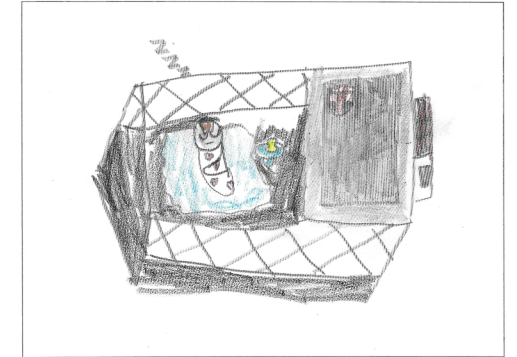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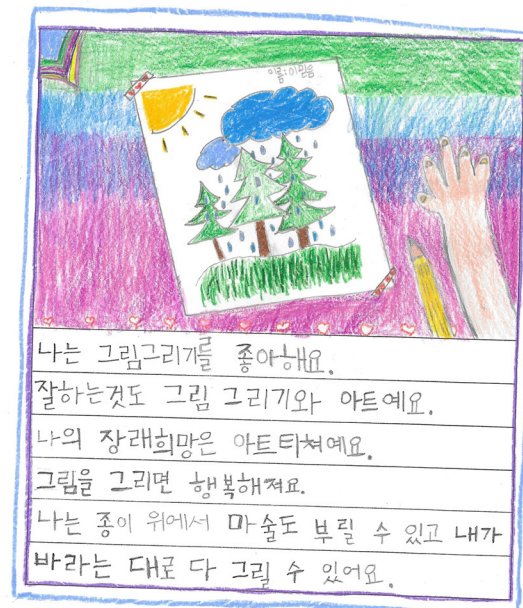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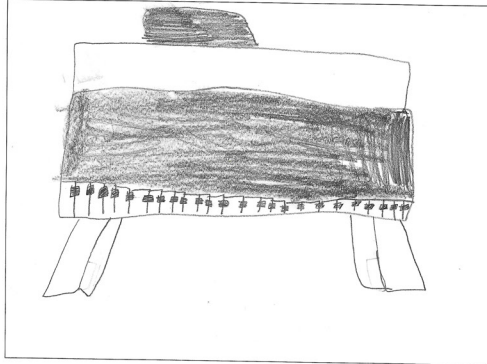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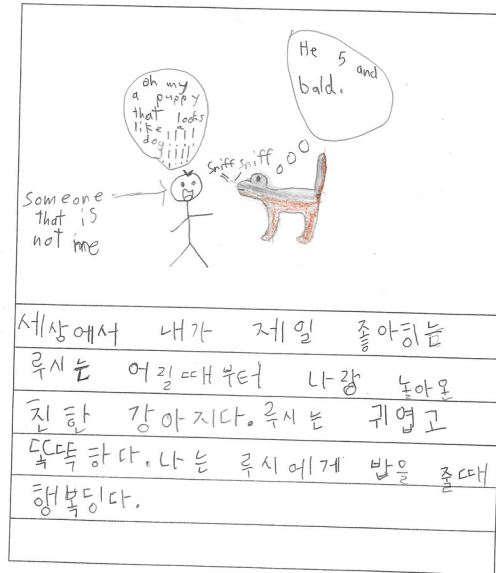
저는 줄넘기를 좋아해요.
줄넘기를 하면 키도 크고 건강
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매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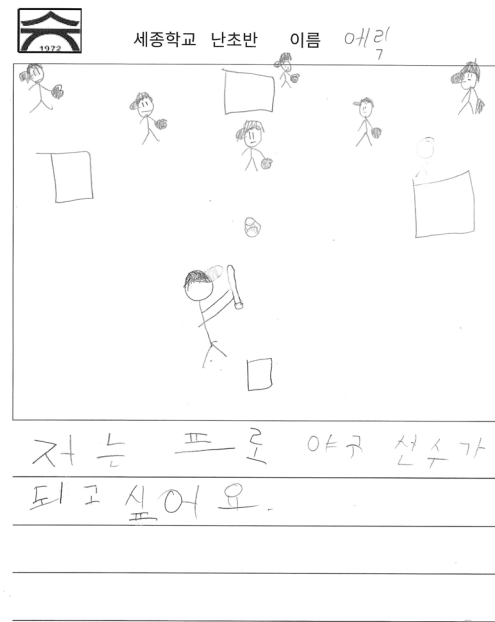


저의 장래희망은 선생님이예요. 제가 다섯살때
엄마와 같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광고가 나왔어요. 그 광고의 내용은 도와달라
는 내용이었어요. 많은 아프리카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아프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대요.
그걸 제가 볼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 불쌍해 내가 커서 저 아이들을 도와줘!
그때 부터 제가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림 그리는것을 좋아해요.
다양한 도구와 재료를 사용해서 나의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색깔하는 과정이 재미있어요.
그림을 완성하고 나면 뿌듯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그림을 보여줄때 행복해요.





무궁화반

교사 이숙경

첫날 무궁화반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날은 설레면서도 한편으로 걱정도 많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듯 아이들 이름을 외우는 것이 큰 과제인 저에겐 전년도 보다 늘어난 무궁화 반 아이들 숫자에 조금은 긴장된 마음으로 첫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제게 생긴 걸까요? 제 기억력이 갑자기 좋아졌을 리는 만무한데 정말이지 이미 알고 지내던 친구들처럼 그 많은 아이들의 이름이 너무나도 쉽게 기억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에 의미 없는 인연은 없게지만서도 이번 년도 친구들과의 인연이 첫날부터 운명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첫수업을 시작으로 마지막 시간까지 한국어를 가르치며 아이들이 세종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는 저의 바램은 조금씩 각자의 페이스대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 친구들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렇듯 아이들은 생각보다 훌륭히 그들의 몫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조금은 어려운 한국어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는 역사 시간에 보여주는 뽕망 뽕망한 눈동자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한국인으로서 뿌리를 기억하고자 하며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듯하여 너무 뿌듯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년도 무궁화반은 재잘재잘 이야기거리가 참 많은 친구, 조용히 다른 친구들의 모습을 관찰하는 친구, 그리고 서툴어도 열심히 한국어로 소통하며 자신의 의견을 보여주는 친구 등 아주 다양한 모습의 아이들이 모여 있는 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각양각색의 다른 친구들의 모습속에서 아이들은 서로의 다름을 살펴보고 이해하며 서로에게서 배움을 얻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아이들과 매주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고민도 하고 기뻐도 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알차게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주었던 선하고 순수한 마음과 기운은 항상 제 마음속에 기억될 것입니다.

무궁화반 친구들, 5학년이 되어서도 어디서나 파이팅!



내가 좋아하는 것

무궁화상 최혜서

나는 꽃을 키우는 것을 좋아해요. 사실, 나는 처음에 털이 있는 동물을 키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내가 아직 어려서 동물을 키울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것을 키울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와 언니가 마당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 날 언니가 예쁜 꽃들을 심고 있는 걸 봤어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나도 꽃을 키우고 싶었어요. 나는 집에 있던 꽃씨를 찾아서 내 화분에 심었어요. 씨앗을 심기 딱 좋은 날씨였어요. 나는 매일 물을 주었어요. 날씨가 추워지면 화분을 내 방으로 가져와서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람쥐가 화분을 파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도 꽃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신기했어요. 가을에는 꽃이 지고 씨앗도 모아 두었어요. 그때부터 나는 꽃을 키우는 일이 더 좋아졌어요. 내년에는 어떤 꽃씨를 심을까 기대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

아름다운상 박태양

나는 운동 중에 수영을 제일 좋아해요. 물 속에서서는 하늘을 나는 기분이 들어서 행복해요. 마치 천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예요. 나는 매주 수요일마다 수영 레슨을 해요. 그래서 수영을 아주 잘 할 수 있어요. 물 속에서 고래처럼 오랫동안 잠수도 할 수 있어요. 엄마랑 시합해서 이긴 적도 있어서 너무 기뻐요. 나는 물 속에서 입으로 공기를 뿜어서 물방울 도너츠도 만들 수 있어요. 지난 여름 방학 때 삼촌이 놀러 왔을 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나도 할머니께 가르쳐 드렸는데 너무 신기해 해서 뿌듯했어요. 나는 앞으로 수영을 더 열심히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수영 선수가 되는 게 내 꿈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고운상 박수빈

제가 좋아하는 것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원래는 게임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할 일이 많아서 게임은 주말 밖에 못합니다. 솔직히 게임을 하는 것을 좋아했을 때도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조금 귀찮았습니다. 요즘에는 그림 그리는 것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3학년때는 그림 그릴



시간이 부족했지만 4학년때는 버스를 타서 시간이 생겼습니다. 버스에서 그림을 그릴 때 친구들이 그림을 잘 그린다며 칭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3학년때, 미술 선생님께서 그림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름 방학 이후로 미술을 안 가서 엄마께서 이제 미술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때는 미술 하는 게 재미가 있었는데 다시는 못 한다고 해서 슬펐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그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화가 내려갑니다. 왜 인지 모르겠지만 그림을 그리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에는 굳이 그림을 그리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쉬는 시간에 농구를 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농구를 더 좋아하는지 그림을 더 좋아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림, 농구, 게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예쁜상 배설아

제가 좋아하는 것은 농구입니다. 농구는 드리블, 슈팅, 그리고 패스를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드리블은 한 손으로 공을 바운스 하면서 나아가는 동작입니다. 슈팅은 드리블을 멈추고 골대에 공을 넣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패스는 공을 다른 플레이어한테 던져주는 기술입니다. 저는 이 흥미로운 운동을 8살때부터 시작했습니다. 8살 때 전 농구를 배우며 드리블,



슈팅, 패스, 그리고 막기를 배웠습니다. 그린 뒤, 전 진짜 농구 게임을 했습니다. 그 게임을 한 뒤, 전 농구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농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뛰고, 점프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뛰면 체력이 좋아집니다. 또, 점프를 많이 하면 다리가 늘어져서 키가 커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농구를 많이 연습할 겁니다. 농구를 많이 연습해서 나중에 농구 선수가 될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예쁜상 남호정

3년전 따뜻한 봄 날 우리 집에 귀여운 동생이 생겼어요. 나는 이제 막내가 아니예요. 우리 막내를 너무 너무 사랑해요. 내가 심심할 때 와서 안아주고, 같이 놀 수도 있고 뽀뽀도 잘 해 줘요. 그렇지만 자기 밥을 잘 먹지도 않고, 똥 오줌도 아무데나 싸고 그래요. 그럴 때 정말 미워요. 내 빵도 몰래 먹어버려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이제 커서 심부름을 시키려고 해도 전혀 말을 듣지 않아요. 엄마, 왜 물루는 내 말을 듣지 않아요? 엄마가 말해 줬어요. 강아지는 심부름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아직도 막내였네요.



내가 좋아하는 것

김려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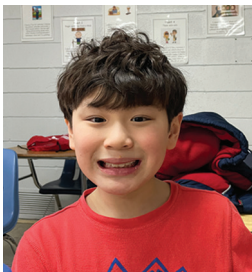
저는 레고 만들기를 좋아해요.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번째 이유는 무엇이든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만약, 핸드폰 스탠드가 필요하다면 레고로 금방 만들 수 있어요. 두번째 이유는 재미있어요. 심심할 때 레고로 놀면 시간이 무척 잘 가요. 무엇을 만들어 보세요. 아무거나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나라에 없는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세번째 이유는 더 빨리할 수 있어요. 종이로 못 만든다면 레고로 만들어 보세요. 레고가 훨씬 더 튼튼하고 재미있어요. 마지막 이유는 더 똑똑해져요. 먼저, 종이에 모델을 그려 보세요. 그 다음에 레고로 직접 만들어 보고 되는지 봐 봐요.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 보세요. 마지막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김성협

저는 마이클 잭슨을 좋아합니다. 예전에 아빠가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들려준 후로 마이클 잭슨이 좋아졌어요. 마이클 잭슨이 궁금해서 인터넷과 책을 통해서 찾아봤어요. 마이클 잭슨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가수이고 댄서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Billie Jean이고, 제



일 좋아하는 춤은 Moon walk이에요. 그래서 올해 할로윈 때 마이클 잭슨 의상을 입고 내가 춤을 댔어요. 마이클 잭슨이 유명해서 인지 내가 마이클 잭슨 춤을 추면 모두 좋아했어요. 나는 춤 추는 것이 좋아졌어요. 나는 커서 마이클 잭슨처럼 나의 노래를 만들어 멋진 공연을 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김주원

저는 오늘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써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들 중에서 축구를 가장 좋아해요. 왜 좋아하나면 운동을 원래 제가 좋아해요. 그리고 발로 하는 운동이 너무 재미가 있어요. 두번째로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게임을 하는 것이예요. 수 많은 게임 중에서도 브롤 스타즈가 제일 좋아요. 그 게임에서는 트로피를 가장 많이 모아야 이기는 게임입니다. 또 좋아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것은 피파라는 것인데 축구랑 게임을 합쳐서 피파를 좋아해요.



요즘은 수학을 좋아해요. 새로운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아빠랑 같이 하면 더욱 재미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롤랑 라엘

내가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이유는 강아지는 너무 귀엽고 부드럽기 때문이다. 강아지가 나를 안아 줄 때 너무 부드럽고 따뜻하다. 강아지가 있으면 아이패드를 안 해도 된다.



내가 좋아하는 것

민윤기

내가 좋아하는 것은 축구입니다. 축구를 하면 재미가 있습니다. 축구 팀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게 재미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축구를 해서 더 좋습니다. 코치들도 착해서 더 재미가 있습니다. 공을 찰 때 골대에 들어가면 친구들이랑 같이 시끄럽게 소리 지릅니다. 축구 할 때 마다 마음이 더 편해지고, 기분이 더 좋아집니다. 학교에서 축구 할 때는 우리 팀이 많이 이겨서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 축구랑 팀 축구 할 때 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축구를 잘하고 싶어서 연습은 많이 해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해서 축구를 더 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연습은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축구를 잘해서 좋은 팀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축구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

서민솔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림 그리기예요. 내 꿈은 화가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림을 잘 못했지만 엄마가 도와줬어요. 물고기, 사자, 사람, 새, 나무, 그 중에서 저는 사람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4살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림 그리기를 많이 했는지 페이지를 다 썼어요. 점점 내 그림이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람이 아니라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미술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 현재에 진짜 잘 그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친구들과 클럽을 시작했어요. 우리 클럽은 만화책 만드는 클럽이에요. 영어로도 하고 한글로도 만화책을 만들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될 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제 과거 나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취미를 포기 안할거예요. 왜냐하면 이룰 때까지 포기하면 안돼요. 그리고 저는 제 꿈을 이룰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손하준

제가 좋아하는 것은 레고입니다. 제가 왜 레고를 좋아하나면 레고를 설명서를 보고 조립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 우리는 어디에 피스가 들어가는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오랫동안 레고를 손으로 맞추면 손이 빨개지고 손이 아파집니다. 옛날에는 레고 앱이라는 게 없었는데 지금 시대에는 레고 앱이 있습니다. 만약에 레고 설명서가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면 핸드폰, 패스, 컴퓨터로 레고 앱에 들어간 다음 지금 하고 있는 레고 숫자를 입력하면 레고가 뜨는데 그럴 클릭하면 입체(3D) 모양을 손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100% 더 쉽고 어디에 레고를 놓는지도 더 쉽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더 뛰어나고 더 신기한 레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 레고를 조립하면 많이 틀릴 수 있지만 많이 레고를 조립해 봤으면 거의 조립할 때 안 틀립니다. 하지만 레고를 할 때 틀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도 첫번째로 레고를 할 때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리고 왜 레고를 만들었을까요? 왜 요즘 레고 값이 올라가고 있는 걸까요? 요즘도 레고는 인기가 있을까요? 누구인지 몰라도 레고 앱을 만든 사람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레고 앱 등 없었던 것들을 창의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안유진

나는 자유 시간에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르는 판타지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판타지 책은 “불의 날개: 용의 예언”입니다.

주인공은 클레이라는 크고 사랑스러운 머드 윙(진흙을 좋아하고 늪에 사는



갈색 용)입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동굴에서 삽니다. 클레이는 친구들과 동굴을 떠나서 흥미 진진한 모험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용은 클레이 친구 글로리. 글로리는 클레이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었어요. 나는 클레이의 용감함이 마음에 듭니다. 클레이는 친구들이 악당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나도 클레이처럼 용감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글로리의 착한 마음을 좋아해요. 나도 글로리처럼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왜 내가 “불의 날개: 용의 예언”을 좋아하는 이유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안정후

나는 엄마가 좋다. 나의 엄마는 최고이기 때문이다. 나의 아빠도 최고다. 부모님은 항상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것은 게임이다. 친구들이나 가족이랑 같이 하면 더 재밌다. 마인크래프트는 매우 창의적으로 게임할 수 있어서 가장 좋다.



내가 좋아하는 것

우윤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요, 그림을 그리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저는 귀여운 캐릭터를 좋아하고 잘 그려요. 귀여운 캐릭터



랑 말주머니를 그려서 카툰을 만드는 걸 좋아해요. 최근에도 카툰을 만들었어요. 그 카툰은 아기 기린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기 기린의 뱀 친구가 이사 가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2-D 카툰을 잘 그려요. 왜냐하면 2-D가 3-D 보다 그리기 쉽기 때문이죠. 제 생각에는 카툰은 3-D보다 2-D가 더 잘 어울려요. 저는 항상 친구들의 생일 카드에 그림을 그려줘요. 친구들이 제 그림을 보고 좋아하면 저도 좋아요. 제 엄마도 좋아해요. 제 아버지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

정여름

제가 좋아하는 것은 댄스입니다. 7살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이라서 조금 동작하기도 어렵고 그랬지만 촬영을 했을 때부터 기억에 남았어요.



더욱 많은 K-pop을 배우고 점점 더 잘하게 된 기분이 올라왔어요. 저는 한 8살쯤에 이사를 가야 했어요. 그때도 댄스를 주말마다

하러 가요. K-pop도 너무 많이 해서 힙합 같은 것도 배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댄스 촬영 뿐만 아니라 댄스 무대도 한번쯤은 하고 싶었어요. 이사를 또 간 뒤 다른 댄스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댄스 학원에서 친구도 생기고요. 댄스 학원은 무척 좋았어요. 1년에 한번만 하는 댄스 무대를 시작했어요. 대기실에서도 김밥도 주셨습니다. 옷 의상도 맞춰어요. 인상이 깊었습니다. 미국으로 갑자기 가야 하는 상황에 댄스 학원을 계속 다니지만 한국 친구들이 그립네요. 미국에서는 힙합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어요.



장미반

교사 윤희란

춡고 긴 겨울이 지나가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세종문집에 수록될 글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 해 장미반에서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성취도와 특성을 파악하고 각자에게 맞는 과제를 주면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게임을 수업 내용에 맞추어 적절하게 활용하였고 모둠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있게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뛰어난 수민이는 글쓰기에도 소질을 보여 세종 글짓기 대회에서 “장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밝고 쾌활한 가현이는 항상 웃는 얼굴로 친구들을 잘 도와주었고 모든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수업 분위기를 활기차게 이끌었습니다. 올 해 장미반의 유일한 남학생인 성우는 세종 골든벨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성우는 수업 태도가 모범적이고 차분하게 발표를 잘 했습니다. 은서는 수줍음이 많아서 먼저 나서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글씨를 예쁘게 쓰고 매력적인 미소를 가진 서연이는 숙제를 열심히 하고 주어진 과제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나는 올 해 처음으로 세종학교에 등록을 했지만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열심히 노력하여 시간이 갈수록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장미반에서 함께 했던 시간들이 즐겁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감자 인형

장미상 조수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감자예요. 그냥 야채 감자가 아니라 작은 감자튀김 인형을 좋아해요. 그 인형의 이름이 감자예요. 딸기만큼 작은 다른 인형인 햄버거, 타코, 그리고 만두 인형이 있지만 저는 감자가 가장 귀엽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인형 세트를 학교에서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 쉬는 시간에 선물을 뜯고 감자와 다른 인형들을 보았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매일 학교에 가지고 왔어요.



그 선물을 준 친구와 컴퓨터로 감자와 햄버거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또 밖에서 놀 때 그 친구와 감자랑 같이 할 수 있는 놀이를 개발해서 재미있게 논 적이 있어요. 감자는 작아서 감자의 미니 하우스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친구와 완성을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잘 되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최근에 그 선물을 준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감자와 햄버거 &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짧은 영화를 만들었어요. 저는 그동안 더 많은 작은 인형들을 모았어요. 버블티 인형, 부엉이 인형, 개구리 인형, 컵케익 인형, 아이스크림 인형들이 있어요. 감자, 햄버거, 타코, 그리고 만두 인형이 있는 세트는 두 개를 또 샀어요. 그래서 이제 감자가 세 개나 있어요. 지금도 많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자가 백개, 천개나 있었으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

아름다운상 최성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은 “나호아”예요. 저는 고양이를 좋아해서 나호아가 정말 귀여워요. 나호하는 초록색 고양이고 포켓몬 9세대에 나왔어요. 포켓몬에서 스타팅이 세마리 있는데 나오하는 그 중에서 하나예요. 나오하는 포켓몬 스칼렛 바이올렛에서 처음 나왔어요. 처음에 나온 세마리 중에서 저는 나오하를 골랐어요.



저는 7 살 생일에 나오하 인형을 선물로 받았어요. 학교에서 가끔 인형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날이 있는데 저는 나오하를 주로 가져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나오하의 눈이에요. 나오하의 눈은 초롱초롱하고 분홍색이라서 예뻐요. 제가 게임을 할 때는 포켓몬의 이름을 풀고양이라서 “풀고”라고 지었어요. 저는 포켓몬이 새로 나올 때마다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이 바뀌어요. 다른 포켓몬들이 더 인기가 많은데 저는 나오하가 제일 좋아요. 그 이유는 제가 멋진 것보다 귀여운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나오하가 진화하면 나르테가 되고 최종 진화한 것은 마스카나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은 나오하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모

고운상 박서연

우리 가족은 아빠의 일때문에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의 가족을 만나려고 2년에 한 번 한국에 가요.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는 오랫동안 만난 우리를 환영해 주세요. 그 중에 이모는 일을 해야 하지만 우리가 한국에 가면 이모의 시간을 쓰고 우리랑 시간을 보내요.



작년에 한국 갔을 때 이모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우리 가족을 부페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모가 책과 장난감, 그리고 옷을 사주셨고 용돈도 많이 주었어요. 엄마가 친구를 만나러 나갔을 때 이모는 저와 동생을 돌봐주었어요. 우리랑 숨바꼭질도 하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했어요. 이 모든 이유는 제가 이모를 좋아하는 이유예요.

하지만 이모는 너무 멀리 살아요. 그래서 이모를 자주 보지 못해서 더 보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모와 전화할 수 있으면 같이 영상 통화를 해요. 그리고 가끔 카톡도 해요. 내가 전화를 걸면 이모는 기뻐요. 저도 이모랑 통화하면 좋지만 시간이 달라서 자주 할 수 없어서 아쉬워요. 그래도 이모를 엄청 많이 좋아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캠핑

예쁜상 유가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가족이랑 캠핑가는 거예요. 제가 캠핑을 좋아하는 이유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라면을 끓이고 아빠는 고기를 구워요. 소세지도 굽고 쫄깃쫄깃한 고기가 엄청 맛있어요.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재미있어요. 강아지와 산책도 하고 공원도 가고 하이킹도 하고 쇼핑, 게임이랑 수영도 해요. 밤에는 별도 볼 수 있어요. 저는 캠프파이어 하는 것도 좋아요. 마쉬멜로도 굽고 불명도 하고 나무 타는 냄새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캠핑이 엄청 재미있어요.



앞으로 그랜드 캐니언을 보고 싶어요. 풍경도 보고 라스베이거스도 가고 싶어요. 언젠가 하와이도 한 번 가고 싶어요. 호텔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바다도 보고 싶어요. 앞으로 여행을 하면서 캠핑도 많이 가고 싶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방송

노보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티비 방송은 “한국은 처음이지”예요. 거기에서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세 밤 자요. 한국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어요. 등산도 하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요. 어떤 사람들은 백두산도 올라가요. 한국에 살았던 외국 사람들의 친구들이 한국에 와요. 친구들이 신기해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싶어 해요. 여러가지 음식들을 먹는데 사람들이 모두 갈비, 삼겹살, 불고기와 같은 바비큐를 좋아해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반찬은 김치예요. 외국 사람들은 한국의 여러가지 곳을 볼 수 있어서 좋아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

최은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책이에요. 저는 자유 시간이 있으면 책을 읽어요. 책을 읽으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저는 판타지가 좋아요. 저는 지금 “The Swifts”를 읽고 있어요. 작가 이름은 Bethlicon이에요. 저는 보통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요. 도서관은 편하고 책이 많아요. 제가 자주 가는 도서관은 Auburn Hills 도서관이에요. Rochester Hills 도서관은 가끔 가지만 Orion Township 도서관은 자주 안가요. 저는 책을 좋아해서 Battle of the Book도 해요. 제 친구도 책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는 것이 정말 좋아요.





해반

교사 김정화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기분이 좋습니다.

한국어 교과서와 열심히 한 숙제들, 도시락을 들고 밝은 표정으로 세종학교로 오는 우리 반 6학년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자라며, 대부분 영어가 제1 언어인 우리 친구들이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순간순간이 얼마나 값진 시간일지 알고 있기에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유의미하고, 즐거운 수업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언어는 우리가 세계를 분류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언어의 다양성은 인간 사고의 다양성을 가능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 특별히 시간을 내어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은 더욱 풍성해 질 것입니다.

주말마다 열심히 세종학교에 참여해 준 해반 친구들과, 항상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챙겨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9월이면 이제 7학년이 될 우리 해반 친구들의 빛나는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나의 꿈

해상 이레나

세종학교에서 나의 꿈 글짓기 숙제가 나올 때마다 저는 항상 고민했어요. 저의 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 시간 동안 고민을 하다가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 목록을 인쇄해 주셨어요. 여러가지 직업들을 보다가 수학교사 라는 직업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저는 수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는 답이 항상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수학이 어려워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수학을 더 좋아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가르쳐 주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수학교사가 되려면 인내심이 필요하고, 잘 가르칠 수 있어야해요. 학생들이 이해를 못할때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잘 설명해 줘야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인내심이 부족하고 가르치는 방법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번은 제 친구가 수학 문제를 저에게 물어봤는데 제가 아는 내용이었지만 잘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8학년이 되면 초등학교에 가서 수학을 힘들어 하는 어린아이들을 도와주며 인내심을 기르고,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제가 어린 아이들을 도와주는 경험이 많아진다면 좋은 수학교사가 될 수 있을거예요.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일이 재미있으면 좋겠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재미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수학을 사람

들이 더 좋아할 수 있게 한다면 제가 행복해질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학교사가 되고싶어요.

나의 멋진 꿈

아름다운상 오은수

안녕하세요! 저는 커서 투자 은행가가 되고 싶어요.



투자은행가는 돈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용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투자 은행가를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투자 은행가들은 모은 돈으로 회사가 더 잘되게 돕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거나 병원이나 학교를 짓는데 투자해요. 이러한 일을 통해 사람들의 삶이 더 좋아질수 있답니다.

훌륭한 투자 은행가들도 많아요. 예를들어 토마스리라는 분은 우리가 사는 미시간에서 태어나서 투자은행가로 크게 성공한 뒤, 자선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하버드 대학교와 박물관 같은 교육과 문화 기관에 돈을 기부하였고, 의료 연구와 예술 분야에도 지원하며,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보탰어요. 그래서 그는 단순히 성공한 투자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선가로 알려져 있어요.

저도 나중에 투자 은행가가 되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회사들이 성장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돕고, 제가 번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도 할 거예요.

투자 은행가는 돈을 잘 사용해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꿀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투자 은행가가 될거예요!
감사합니다.

나의 꿈

고운상 최서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의사, 우주 비행사, 그리고 가수 처럼 이루기 어려운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적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사가 되어야 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소아마비에 걸린 아이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혼자 걷지도 못하고 계속 병원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꼭 의사가 되어 불치병을 치료하는 약이나 치료방법을 발명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발명한 약으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유명한 의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만 부자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의사가 되어 돈을 많이 벌어 무료 병원을 짓는 것이 목표입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의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다보면 더 지혜롭고 현명해 질 것입니다. 그 덕분에 의



사는 물론 제가 하고 싶은 또 다른 일들도 쉽게 할 수 있을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 생활을 하면서 피아니스트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제가 10년, 20년 후에 의사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의사가 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꼭 지켜봐 주세요.

행복한 나

예쁜상 이은서

나의 꿈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대학에 가도,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꿈이 많았어요. 아이돌, 치과의사, 배우 그리고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한 것이예요. 사랑과 행복이 없는데 과연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보다는 행복이 더 중요해요.

저는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 처럼 되고 싶어요. 디오게네스는 길거리에서 강아지들과 함께 살았어요. 디오게네스는 돈이 없었지만 당당하고 행복했어요.

저는 사람들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몰라요. 사람들이 꿈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모를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부모님의 꿈을 따르기도



해요.
저는 세상에 알려주고 싶어요. 자기의 꿈을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 되라는 것을 여러분도 한번 생각 해 보세요. 자신의 꿈!

나의 꿈

김규림

나의 꿈은 애니메이터입니다. 애니메이터는 움직이는 만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은 무척 재미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캐릭터를 만들고 나서 그 캐릭터를 원하는대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니메이션 만드는 것은 재미있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합니다. 한 이미지를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천천히 그려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은 내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의 꿈

김영제

나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정형외과 의사가 되고싶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뼈에 관심



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뼈는 매우 신기합니다. 이에 대해 연구하여 컴퓨터를 활용하여 인공 뼈를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합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봉사하며 아픈사람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 엄마 아빠도 모두 의사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노력하여 나의 꿈을 이룰 것 입니다.

나의 꿈

이지우

나는 좋아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바이올린, 책 읽기와 글짓기, 컴퓨터 게임, 비디오 만들어서 Youtube에 올리기.....

하지만, 어른이 돼서 무엇을 할 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무슨 일을 하든 그림 그리거나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나는 Ghibli Studio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과 ‘원령공주’를 좋아합니다.

이 애니메이션들을 보고, 그림 그리거나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애니메이션으로 잘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림 그리기 연습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꿈

전레오

저는 이 다음에 커서 미국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저의 목표는 국제연맹을 개혁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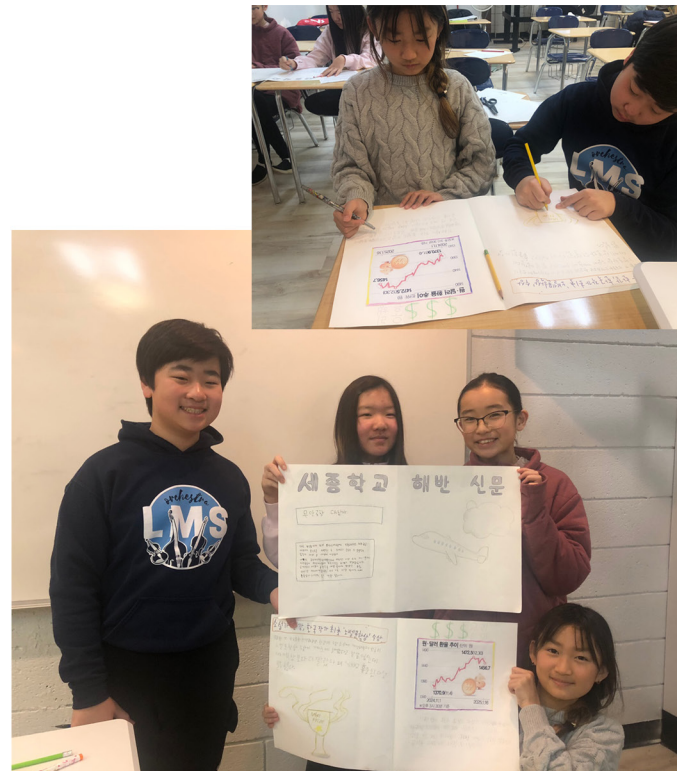
또 전세계 통화를 하나로 통합해서 다른 나라로 벤모를 보낼때 환전을 안해도 되도록 하고 싶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안 된다면 비디오 게임 디자이너가 될거예요.

지루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빨리 끝나지도 않는 그런 게임을 만들고 싶어요.

비디오 게임 디자이너가 되면 제가 만든 게임을 공짜로 즐길수 있으니까요.

이상 저의 꿈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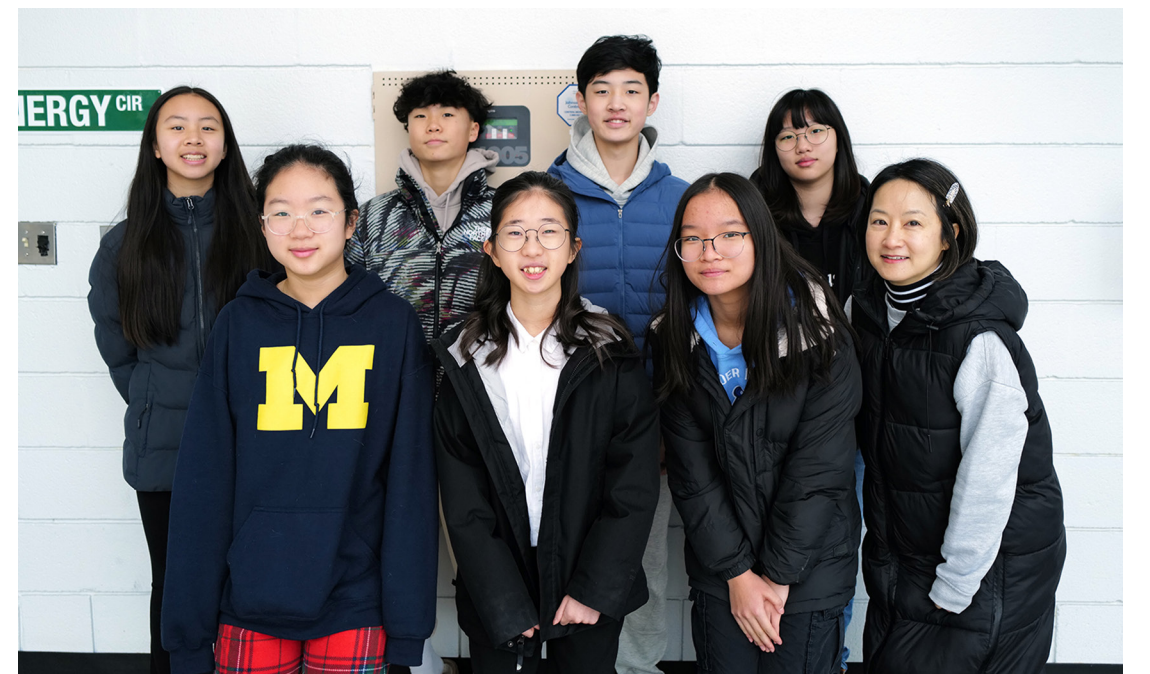


솔반

교사 박문선

작년 9월 7일 처음 아이들을 가르쳐 보는 긴장감과 더불어 처음 보는 솔반 친구들과의 서먹함이 덧대어진 그 날이 기억이 납니다. 밝은 모습의 솔반 친구들로 인해 그 서먹함과 긴장감을 걷어내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항상 ‘우리는 가족이야’ 라며 서로를 챙기며, 함께 웃고 떠들면서 수업한지 벌써 일 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7학년 친구들은 어떤 아이들일까, 친구들의 한국어 실력은 어떨까, 내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들을까 걱정했던 제 모습이 무색하게 한국어 실력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관심도 많았고 이미 아는 것도 많았던 우리 솔반 친구들, 축구를 좋아하여 간식 시간마다 힘껏 뛰어놀면서도 수업 시간 때에는 항상 집중하여준 이준이, 똑뿌러지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어른스러운 연서, 예쁜 글씨로 꼼꼼히 한국어 수업에 임하며 매사에 성실하고 인사성이 바른 모범적인 지훈이, 가장 일찍와서 수업 준비를 하며, 서스럼 없이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며 배움을 즐거워 하였던 강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항상 질문하며, 숙제도 잊지 않으며 배움에 관심이 많은 예쁜 미소의 라엘리, 포용력을 지녀 교우관계도 좋고, 설날 예쁜 한복을 입고 온 조용하지만 강단이 있는 (최)예린이, 성실하게 등교하여 선생님 앞 자리에 앉아 한국어를 배우고자 한 털털한 성격을 지닌 (한)예린이.

토요일날 아침마다 빠지지 않고 서툰 선생님과 수업을 함께해 준 우리 솔반 친구들과 함께 한 일 년이라는 시간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등하교시간 맞춰 라이드 해주신 부모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의 다른점

솔상 이라엘

여러분은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봤나요? 나라마다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다르고, 독특한 문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도



지형 및 삶의 환경, 예절 그리고 명절까지 다른 문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사막, 협곡, 정글과 같은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멋진 자연 경치들이 많고, 여행객들도 많이 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산이 많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사람들은 바다를 보러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보다 작지만, 인구 밀도는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또 다른점은 예절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른들께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악수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미국과는 다르게 어른들께 존댓말을 써야합니다. 예를 들면 어른이 ‘자고 있어’가 아닌 ‘주무시고 계세요’라고 합니다. 또한 많은 미국 사람들은 집안에서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만, 한국에서는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다른 명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명절중 하나인 추석에는 송편이라는 달 모양의 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기념하는 명절인 설날에는 떡국을 즐겨 먹습니다. 미국에서는 할로윈에 아이들이 분장하고, 이웃집을 돌아다니면서 캔디를 받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구이를 만들어 먹고, 가족과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은 다른 지형 및 삶의 환경, 예절, 그리고 명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다른것과 같이 세계 여러 나라들은 신기하고 다양한 문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면 새로운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다른점

아름다운상 양지훈

지난 여름 방학에 저는 가족들과 함께 한국의 DMZ에 다녀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강을 건너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미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상한 표지판들이었습니다. 표지판에는 거꾸로 그려진 미사일 그림과 ‘지뢰가 있으니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는 무서운 경고가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는 끊어진 기차길과 더이상 움직이지 않는 오래된 기차가 서 있었습니다. 남북을 연결하던 기차가 전쟁으로 인해 6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DMZ에서 돌아오는 길에 뉴스에서는 북한에서 날라온 오물 풍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아직 전쟁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름 방학동안 한국에서 지내면서 한국과 미국의 다른점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하철, 버스같은 대중교통이 발달한 한국과 다르게 미국에서는 어디를 가려면 얼마나 아빠차를 타고 가야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집 근처의 시장은 분명 미국 마트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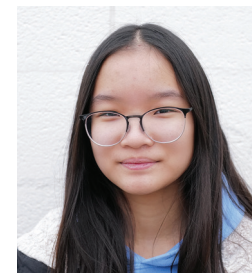
다 맛있는 식당들이 많았고, 재미있는 볼거리도 많았습니다. 또한 한국은 거리 곳곳마다 안전을 위해 설치된 카메라들이 미국보다 많이 보였습니다. 어두워지면 보통 집에만 있어야 했던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밤거리를 다녀도 많은 사람들이 큰 걱정없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 총기사고 같은 무서운 뉴스도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좋은점이 많은 한국이 미국과 가장 다른점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진 분단 국가라는 점입니다. 전쟁으로 끊어진 다리와 달리지 못하는 기차가 있고, DMZ 근처에는 남과 북의 군인들이 서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해서 미국과 같이 한 나라가 되어 멈춰있는 기차가 다시 남과 북 어디든 걱정없이 달릴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다른점

아름다운상 최예린

한국과 미국은 서로 다른 역사와 환경을 가지고 있어 문화의 차이가 큼니다. 특히 식생활, 학교 생활, 그리고 예절에서 두 나라의 차이점을 뚜렷하게 느낄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과 한국의 식생활에서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나라에서는 모두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음식의 종류와 방식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간단한 음식, 샐러드나 스프와 같은 음식을 자주 먹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밥과 국을 기본으로 세가지에서 다섯가지의 다양한 반찬들과 함께 먹습니다. 이 반찬중에서 고기와 채소가 많고, 여러가지 음식을 한상에 차려서 먹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 먹을수 있는 떡볶이나라면, 과자같은 음식을 간식으로 먹습니다. 미국에서는 쿠키, 팝콘, 칩과 같이 더 간단한 간식을 주로 먹습니다. 미국 간식의 종류는 조금 더 간단하고, 손쉽게 먹을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둘째, 학교 생활에서도 차이점이 많습니다. 한국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그리고 고등학교 3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유치원 1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3년 그리고 고등학교 4년으로 구성되어 한국과 다릅니다. 이 밖에도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생활 모습도 다릅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대부분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받으며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도 공부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반면 미국의 학생들은 공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스포츠, 악기, 미술 활동등의 다양한 교외 활동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때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사회적 경험을 쌓는것을 중요하고 여깁니다.

셋째, 예절에서도 한국과 미국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존댓말을 사용하고, 인사할때 머리를 숙여 인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이를 존중하는 문화가 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존댓말이 없고, 나이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성공이나 목표를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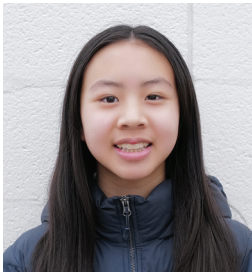
이처럼 한국과 미국은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

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알고 배운다면, 우리는 더욱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으며, 소통할 수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첫 걸음을 바탕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한다면, 다른 문화를 가까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서로를 존중할 수도 있을것 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다른점

고운상 이강

우리는 모두 같은 지구에 살고 있지만, 어느곳에 가도 항상 차이점은 있습니다. 예로 한국과 미국은 같은 지구에 살고 있고, 같은 반구에 위치하여 있지만 태평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듯 하지만 또 전혀 다르기도 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첫번째 차이점은 안전입니다. 내가 한국을 방문했을때 매우 안전하다고 느꼈고, 또 사촌들과 밤늦게 돌아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많은 도시에서는 범죄율이 높기 때문에 내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교외 지역은 저녁이 되면 어둡기 때문에 저의 동네에서조차 어두워진 후에 혼자 걷는것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또 다른 차이점은 사람들입니다. 한국은 이민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하나의 민족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생김새와 배경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둘러쌓여 있다는 점이 어떤 사

람들에게는 안전함을 느끼게 합니다. 미국은 다른 배경을 가진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민자 국가입니다. 다양성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안에서 더 안전함을 느낄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국과 한국의 마지막 큰 차이점은 교육에 대한 관심입니다. 한국에서 교육은 높이 평가되고,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내가 한국에 갔을때 모든 학생들은 항상 공부에 집중했고, 놀 시간이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교육열은 한국보다 낮은것으로 평가됩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에서 만큼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가지 큰 차이점은 안전, 사람 그리고 교육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차이점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그 관점에서부터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다른점

예쁜상 김연서

한국과 미국은 음식, 언어, 문화등 다양한 차이와 다른점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생각하는 한국과 미국의 다른점 중 하나는 음식입니다.

미국 음식을 생각하면 바베큐, 햄버거, 감자칩 등 기름진 음식이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맛이 강한 음식을 좋아하며, 소스와 소금이 음식에 자주 들어갑니다. 또 이민자의 나라



답게 여러 나라의 음식 문화가 함께 발달해 있기도 합니다. 한국의 음식은 밥과 국, 반찬들이 매우 다양하고 야채와 고기 생선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또 한국인들은 매운맛을 좋아해서 김치라는 고유 음식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한국과 미국의 다른점은 언어입니다. 한국은 한글을 쓰고, 미국은 영어를 씁니다. 영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공용 언어로, 영어는 알파벳을 사용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단어와 발음이 지역과 나라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한국은 한글을 쓰며,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소리와 입에 모양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는 어려운 한자를 대신해서 평민들도 글씨를 쓸 수 있도록 만든 훌륭한 언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크게 다른점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다양한 나라와 인종의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이민국입니다. 한국은 우리를 한민족이라고 말하며, 같은 인종 같은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전통들은 다양한 나라의 이민자로부터 온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명절이라도 어느 나라의 뿌리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그 명절을 즐기는 방법이나 놀이가 다양하고 서로의 전통을 소개하고 알아가는 행사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활절 달걀을 숨기는 문화는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미국의 문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우리가 항상 해 오던 전통을 지키고 이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설날은 음력을 따르는 새해이며, 우리만의 전통인 떡국을 먹고, 한복을 입고, 어른에게 새배를 하고, 또 윷놀이를 하는 문화는 한국만의 고유의 전통입니다.

결론으로 한국과 미국은 음식도 언어도 문화도 다른점이 많지만, 한국과 미국은 저에

게 모두 소중하고 저를 만드는 하나의 문화로 느껴집니다.

한국과 미국의 다른점

예쁜상 김이준

저는 미국 미시간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다른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어 한국을 자주 방문했던 경험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방문했던 도시는 대도시라는 점과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의 도시는 교외라는 차이가 가장 크지만 그 외 다른점들도 여러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두 나라의 생활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서울은 빠른 속도의 도시 생활속에서 효율성을 중요시 합니다. 반면 미시간 같은 교외 생활은 조금 느릴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조금 더 여유를 준다고 느껴집니다.

두번째로 학생들이 사는 모습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선행 학습을 하는 학생이 많고, 방과후에 학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방과후에 운동을 하는 방과후 학습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세번째 다른점은 교통 수단입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는 지하철, 버스, 그리고 택시와 같은 대중 교통수단을 사용하여 정말 편리하게 다닐수 있습니다. 반면 미시간은 대중 교통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 개인 자동차가 없이 다니는 것은 편리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가지 차이점에서 미국과 한

국의 다른점을 보여주지만, 두 나라 모두 살기 좋은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점은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에 살든지 좋은 점에 대하여 감사하고 산다면 바로 그 곳이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다른점

한예린

한국과 미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 기념일과 축제, 그리고 나라의 크기는 대표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음식에서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 음식은 대체로 매운 맛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김치나 라면, 떡볶이와 같은 음식들은 매운 맛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반면, 미국 음식은 한국 음식에 비해 덜 매운 편입니다. 햄버거나 피자, 감자튀김 등 매운맛보다는 짭짤하거나 달콤한 맛이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기념일과 축제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어린이날’ 처럼 특정한 날을 정해 온 국민이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어린이날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거나 선물을 주며 하루를 특별하게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없습니다. 대신 미국에는 ‘할로윈’이라는 재미있는 축제가 있습니다. 할로윈에는 아이들이 다양한 코스튬을 입고 집집마다 다니며 사탕을 받는 전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의 크기도 큰 차이점입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매우 넓은 나라입니다. 도시 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비행기나 차로 오랜 시간 이동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기후도 다양해서 어떤 곳은 눈이 많이 오고, 어떤 곳은 일 년 내내 따뜻한 곳도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비교적 작은 나라지만, 고속철도나 대중교통이 잘 발달해 있어 도시 간 이동이 편리합니다.

이처럼 음식, 기념일, 나라의 크기 등에서 한국과 미국은 여러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서로 다른 문화를 배우는 데 아주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라의 문화를 알아가면서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달반

교사 노명숙

2024-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제게 정말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한글학교에서의 배움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자신의 뿌리를 이해하고, 자부심을 느끼며,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창을 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중에 아이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들이 우리 사회를 더욱 밝고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런 순간조차도 우리에게 소중한 배움의 기회로 다가 왔습니다.

특히, 추석과 설날 행사에 한복을 입고 와준 친구도 있었고 함께 전통놀이 재기차기, 윷놀이를 함께 하면서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달반 친구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전통의 가치를 새롭게 느낄수 시간 이였습니다. 달반 친구들과 함께한 해는 제게도 잊을 수 없는 배움과 추억의 시간이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글학교의 8학년(달반)을 마치며, 한글학교에서 쌓아온 배움과 추억은 여러분의 삶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을 잊지 말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세상을 넓게 바라보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며,
여러분의 성장을 지켜본 선생님께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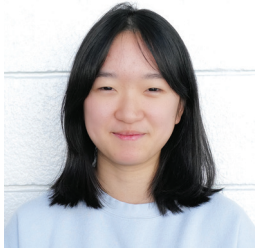
감사와 사랑을 담아,
노명숙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달상 이연서

21세기는 ‘존재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과거와는 상반된 기술적 발달과 재산의 상향 평준화로 인해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내면과 정신적 건강은 신경 쓸 여유가 생겼다. 곧,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재산과 소유물 등의 피조물보다 그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해주는 인간이 비로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세상에서 파생한 용어가 있는데, 바로 ‘YOLO’이다,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번뿐이며 기회가 왔을 때 즐겨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YOLO 사상의 정의가 변질되었다. 현재 사람들이 접하는 YOLO 인생은 원하는 대로 소비하고, 먹고, 파티 하고 여행하고, 즐기는 모습을 것이다. 자기 자신이 주체인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는 인생은 물론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니다. 자신의 행복은 자신의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자신의 자유를 통제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건강한 YOLO의 모습이 아니다. 하나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자신을 아끼고 풍만한 하루하루를 살고 싶다면 자신에게 제공한 것은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인생의 리듬과 본인에게 맞는 길과 선택이다. YOLO에 따르면 인생은 오로지 당신에게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잘 하는 것에 존중해 당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남들의 기준이 아닌 나의 행복에 맞춰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 YOLO의 진정한 정의가 아닐까?



내가 생각하는 YOLO는 ‘주체성과 선택’의 결합이다. 남들이 뭐라 하든, 환경이 어떻든, 성별이 어떻든, 국가 정체성이 어떻든 진정한 나의 길을 찾아 열심히 부딪혀보는 것 그것이 바로 재미와 소비만을 위하는 현대의 YOLO가 외면하고 있는 본질이다. 나는 현재 YOLO의 사상에 적합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미래에 나를 가둬 두거나 남들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을 찾아 매일매일을 여행하듯이 산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길로 방향을 잡았다. 나는 공부뿐만 아니라 친구들이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며, 같이 이야기를 하거나 쇼핑을 자주 간다. 나에게 친구들과 가족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그들을 위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또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첼로 연주나 배구를 취미 삼아 하고 있으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다. 주체적인 인생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하는 선택 YOLO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에 따라 자신이 생각하는 YOLO는 다른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들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인생의 목적지를 단 하나의 모습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원적으로 바라본다는 것, 당신의 자유, 행복, 사랑, 건강, 재산, 가족, 재미, 그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 YOLO, 하나뿐인 인생이지만 당신의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YOLO

아름다운상 박다연

YOLO의 뜻은 “You only live once” 한국어로 한 번만 산다는 뜻이다. 한 번뿐인 인생을 재미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는 게 YOLO 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저는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인생의 모든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너무 짧다고 말하는데 순간이 있을 때는 지나치게 고민하지 말고 그 순간을 즐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야 하지만 한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험 감수 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계를 알지 못하고 나중에 후회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YOLO에는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 합니다. YOLO는 누구에게 위험을 감수하고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누군가 항상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고 안전 지대를 벗어나서 새로운 것은 시도하면서 꿈과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누구에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도움이 될 수 있다. 인생을 최대한 최고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YOLO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적게 생각하게 만들 수 있어서 성급한 결정을 만들 수 있으며, 나중에 미래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YOLO를 사용하더라도 결정을 내릴 때는 의도와 의미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OLO는 사람들이 경계를 잊게 만들 수 있다. 누구는 실수를 하거나 부주의하고 무



책임한 행동을 하고 YOLO 실험의 뜻으로 해서 나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YOLO는 인생이 무한하지 않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것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에게는 YOLO 가 위험을 감수하고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고 모든 것 사이에서 좋은 균형을 찾으면서 최선을 다해 그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YOLO에 대한 경험이 없지만, 만약 있다면 제 삶이 많이 다를 것 같아. 저는 보통 제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제 일을 빨리 끝내는 것을 좋아 합니다. YOLO 가 있으면 더 평온 해지고 제 일이나 삶 전반에 대해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것 같아 저는 너무 많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중요하지 않을 작은 일에 집착하지 않을 것 같아. YOLO 때문에 실패해도 괜찮을 거다. 무언가를 시도하고 싶다면 시도해 보고 그것이 즐거운지 알아볼 거다.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와 사람들이 저를 판단할까 봐 두려워서 무언가를 하거나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YOLO에 따라 살았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말을 하거나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안전 지대에서 벗어나 신중하게 위험한 결정을 내리고 싶은 것 같아. 학교와 소셜 미디어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가족과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YOLO가 있으면 삶을 더 즐기고, 제가 좋아하는 것과 실제로 하고 싶은 것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는 대신, 생각한 후에 행동할 것 같다. “만약에”와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놓아 버리고 판단 없이 그냥 할 수도 있고, 결국 후회도 없을 것 같다. YOLO는 삶을 최대한 사는 것이지만, 저는 항상 경계를 지킬 것 같다. YOLO 와 함께 살면서 미래와 목표에

대해 생각할 것 같다.

결론적으로, YOLO는 단순히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즐기고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YOLO는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어 하게 만들지만, 또한, 사람들에게 사는 것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 삶을 최대한 즐기며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 사이에서 좋은 균형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YOLO는 생각 없이 모든 결정을 내리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균형을 찾는 것을 중요시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YOLO는 결정을 내리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며, 사람들이 후회 없이 삶을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의 옴로

고운상 서여원

“YOLO 라는 문구는 “You Only Live Once” (한 번만 산다)의 약자로,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문화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종종 즉흥적이고 모험적이며 때로는 무모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며, 이는 사람들이 인생의 본질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사고 방식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용어는 상대적으로 새롭고, 소셜 미디어와 음악을 통해 대중문화에 등장했지만, 그 밑에 깔린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한 주제와 공존합니다.” YOLO는 대담하게 살고 순간을 포착하라는 외침을 대표하며, 우리 삶의 흥분과 복잡함을 동시에 반영합니다. 내 인생에서 “YOLO”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나는 한 번만 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즐기고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상점이나 쇼핑몰에 갈 때 비록 내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네 돈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빚을 지거나 돈이 부족해지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에는 한계가 있으며, 나만의 즐거움을 위해 편안하게 과소비를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예를 덧붙이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쓰려면 먼저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이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자”라는 문구와 비슷하며, 이는 좋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직업적인 성장과 개인적인 즐거움을 모두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에 대해 자신을 너무 비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을 수학 시험을 잘 못 봤고, 그때 울면서 내가 충분히 잘하지 못한다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제 점수가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사실 점수를 낮추고 자신을 낙담하게 만든 것은 작은 실수들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그 한 번의 점수는 장기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 중학생이고, 그 점수는 대학이나 직장의 성적표나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시험은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다음 시험에서는 실수를 줄여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결론적으로, “YOLO”는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고, 기쁨과 슬픔을 모두 받아들이며, 아무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는 영향력 있는 모토입니다.

YOLO (옴로)

예쁜상 박나연

누군가가 인생에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인생을 최대한 살아야 할지 아니면 신중하게 살아야 할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YOLO’ 또는 ‘한 번만 산다’ (You only live once)라는 문구는 시험 하거나 위험할 수 있더라도 흥미로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YOLO에 대한 관점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할 수 있는 동안 최대한 삶을 살라는 긍정적인 기억으로 여깁니다.

인생을 최대한 사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의 YOLO는 간단하고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일 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약간 위험한 YOLO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YOLO를 무모한 행동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YOLO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보다 삶에 대한 현실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YOLO가 없습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으면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없습니다. YOLO를 생각해야 한다면, 돈을 많이 벌어서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싶습니다. 저는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학교에 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여행할 돈이 없습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과 돈이 많이 드는 것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 이유는 돈은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 YOLO로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언제든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YOLO를 갖는 것이 인생의 목표와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위해 달성하려는 업적이죠. 그리고 그 YOLO에 도달하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한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YOLO가 이를 수 없는 불가능한 꿈을 그런 것보다 같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것과 마찬가지로 YOLO에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YOLO를 따르면 새로운 것을 즐기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더 재미있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YOLO (옴로)

이준우

세상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 간 “You Only Live Once” 라는 의미의 옴로(YOLO)’라는 단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 ‘옴로족’이 등장하였습니다.

옴로족은 현재의 행복과 만족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현재를 희생하며 준비하기 보다,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즐기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흥적이고 자유롭게 살기 원하며, 여행이나



외식이나 문화생활, 구입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구입을 해야만 하는 등 다양한 것에 기꺼이 돈을 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을 하여, 지금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올로족의 생활은 당장의 삶이 행복하고, 스트레스가 없고, 현재를 즐기며 다양한 경험을 쌓고 삶을 만족스럽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즉흥적이고 무분별한 소비를 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과 준비가 없기 때문에, 결국 재정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미래에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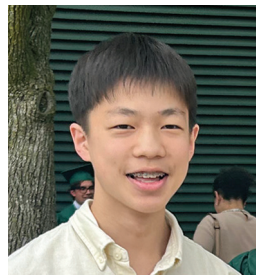
물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기 계발도 되고, 삶이 풍요로워질 수도 있겠고, 올로족이 많아지면 여행이나 외식, 문화 산업도 발달할 수 있겠지만, 미래의 계획 부족으로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 뿐이고, 가치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가지 경험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이유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한 도전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안정을 모두 균형있게 고려하고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올로 라이프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꿈

한민혁

저는 커서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습니다. 프로그래밍은 단순히 컴퓨터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상상 속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이나 웹사이트처럼 흥미로운 걸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점도 멋지지만, 그 과정에서 마주치는 도전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게 더 흥미롭고 짜릿합니다. 제가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창의성’ 때문입니다. 프로그래밍은 정답이 하나뿐인 공부가 아니라, 내가 상상한 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멋진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창의적인 작업은 저에게 큰 열정을 가지게 합니다. 열정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멋진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하나씩 완성할 때마다 저는 성취감을 느낍니다. 처음엔 작은 아이디어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멋진 작품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그래,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뿌듯함이 솟아오르고, 더 많은 것을 만들고 싶다는 꿈이 커지게 됩니다. 앞으로도 저는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더 많은 도전을 하면서 저만의 멋진 프로그래밍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건 바로 내가 만든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별반

교사 이주현

어른이 되어가고 부모가 되면서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에 대한 미안함과 책임감이 늘 마음 한켠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또 한국어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그 책임감은 더욱 가중되었던 것 같습니다. 언어는 그 나라의 정체성과 역사, 그리고 문화를 담고 있기에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어 교육을 언어 그 자체의 습득에 그치지 않고 한국어에 담긴 역사와 문화를 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세종학교 교단에 섰습니다. 첫 부임이라 의욕은 많았지만 부족함도 많았고 때로는 별반 학생들의 열심에 교사의 재량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돌이켜보니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저도 학생들에게 많이 배우고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뿌리를 갖고 미국인이라는 신분으로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고 자신감 있게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별반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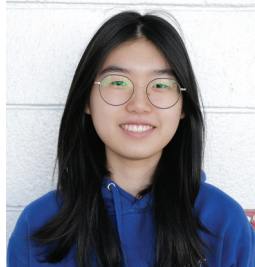
“연서, 하원, 성민, 이안, 아윤, 재연, 지안아! 너희들과의 만남이 선생님에게는 큰 축복이야. 1년동안 고마웠고, 선생님은 늘 너희들을 응원한다.” 아울러 별반 친구들을 매주 토요일 등교시켜주시고, 과제, 시험, 각종 행사에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셨던 부모님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선한 영향이 되는 멋진 성인으로 성장해 나갈 우리 별반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의 모습

별상 박연서

저는 기회를 잡을 때 가장 자랑스러운 자신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항상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생각을 말하지 않았고 스스로 나서기 보다는 뒤로 물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 버려 뒤에서 머무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기회나 대회가 생길 때마다 저는 나가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움과 게으름이 저를 막았습니다. 작년 9학년 때 이런 태도가 저를 많이 제한했습니다. 큰 대회에 나가거나 클럽에 가입하는 것이 너무 겁이 나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을 버린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Fiddlers하고 HOSA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결과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이 안주하던 틀에서 벗어나 순간을 붙잡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드디어 시도해봤다는 점에서 스스로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의 모습

아름다운상 김이안

나는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 두 가지는 나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운동 신경’과 ‘유머 감각’이다. 운동을 잘하는 것은 나에게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유머는 다양한 상황에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중요한 경기를 준비할 때도 혹은 그냥 친구들과 시간을 함께 할 때도 농담을 하면 팀원들과 단합이 잘 되고 친구들을 하나로 모이게 한다. 일이 계획대로 않을 때, 웃음은 모두가 압박감을 잊고 순간을 즐길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러한 나의 장점들은 힘든 순간에도 나를 긍정적으로 이끌어준다. 그래서 나 자신을 기분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준다. 개인의 장점을 계속 발전시키고 노력하면 나중에는 주변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운동 신경과 유머감각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더욱 편안하게 느끼게 해준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두 부분은 일상생활을 할 때도 팀 경기를 할 때에도 필요한 부분이고 나아가 나를 공동체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의 모습 (노력하는 나의 모습)

고운상 박재연

하키를 시작할 때 나는 목표도 없고 규칙도 모르는 레크레이션 팀에서 하고 있었지만 다음 시즌 마다 더 높은 수준의 플레이를 하며 내 자신이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 되는 것을 바라왔다. 처음 스케이트를 탄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였고 그 후부터 하키를 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선수들에게는 늦은 나이인 10살에 하키를 시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다른 선수들은 나보다 더 빠르고 잘했기 때문에 2년 동안 더 나아지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 트레블팀에서 오퍼를 받게 되었다. 첫 해에는 새로운 팀에서 적응을 하면서 시즌을 보냈고 다음 해에는 더 나은 팀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래서 같은 팀에서 1년을 더 뛰며 지난 시즌 보다 20골 이상 더 넣었으며 시즌이 끝난 후 마침내 고등학교 하키팀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키는 내 인생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다. 다른 선수들보다 더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연습과 경기를 준비하여 더 나아지겠다는 목표를 향해 늘 열심히 노력해야 했다. 여름에는 하키 클리닉과 캠프를 하고 연습이 없는 날에는 운동도 하며 매일 오프 아이스 연습도 했다. 이러한 노력하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여 나의 삶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단지 경기에서 이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열심히 한다면 더 많은 기회와 발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의 모습

고운상 최성민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저의 모습은 제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고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많습니다. 가끔은 모바일 게임을 하루 종일 하고 싶고 또 가끔은 친구들과 하루 종일 놀고 싶습니다. 한번은 친구들이랑 놀고 9시에 들어와서 생각해 보니 숙제가 아주 많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숙제를 밤 늦게까지 해야 했고 12시에 자야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하고 싶은 걸 먼저 하느라



고 시간을 낭비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William Penn이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Time is what we want most, but what we use worst.” 저의 상황과 이 말의 뜻은 매우 비슷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사실 제가 잘 관리하지 못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뀌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숙제를 먼저 하고 게임을 나중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행동에서 저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집중력이 향상이 되었고 또 더 똑똑해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엔 졸려서 대충 숙제를 했다면 지금은 에너지가 넘쳐서 숙제를 더 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의 학교 성적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저의 숙제 뿐만 아니라 게임 할 때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게임을 할 때 마음 편히, 아무 걱정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는 시간에 더 많은 공부를 할 수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장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했고 저의 가족도 저의 이런 모습을 좋아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저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정말 뿌듯하고 기쁩니다. 요즘은 저 자신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을 잘 써서 저 자신을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의 모습

예쁜상 장아윤



제목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법은 몰라도, 나를 사랑하는 법은 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밖으로 내보냈다면 상처를 받을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더 월등하고, 더 대단하다는 듯 나의 이야기를 드넓은 모래사장에 떠밀려온 작은 조개처럼 파묻어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다. 비교를 위한 자랑보단 그냥 날 항상 사랑하자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어느 샌가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자랑을 할 때 위축되는 내가 아닌, 당당히 나의 자랑거리는 그저 ‘나’ 라고. 내면을 보는 법은 정말 어렵다. 이 세상에 누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신의 내면을 보여주겠는가. 어떤 사람은 내면을 퐁퐁 숨겨놓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 자랑거리가 훨씬 많아진다. 왜냐하면 자신을 사랑하는 순간, 자신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다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내면을 싫어하는 순간, 나의 자랑거리는 어느 샌가 ‘숨기고 싶어지는 것’ 이 된다. 아니면 거짓말을 보태 자신을 꾸며내는 말이 된다. 그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받길 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자랑거리는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읽고 있는 ‘나’ 이며, 앞으로 살아갈 ‘나’ 인 것이다.



하늘반

교사 송미현

새 학년을 시작하고 아이들과 인사하던 날이 몇주 전 같은 느낌인데 벌써 1년을 마무리하는 글을 적게 되니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학생과 교사로 만나서 수업시간에는 한국어를 깊이 더 배우고 한국에 대한 많은 지식도 쌓으며 열심히 임했고 때론 엄마의 마음으로 많은 공감대도 형성하면서 조언도 나누며 즐겁고 유익하게 한해를 보냈습니다. 11학년 친구들은 아직 세종학교에서 1년 더 만날 기회가 있을테지만, 이번에 졸업 할 12학년 친구들은 앞으로 대학생활을 멋지게 잘 해나가고 사회에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잘 다져가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때면 궁금한 것들을 물어가며, 찾아가며 즐거운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시기적으로 11,12학년 때가 가장 바쁘고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실히 출석한 친구들과 결석이 있었지만 열심히 노력해준 하늘반 친구들에게 많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항상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 조국을 사랑할 수 있는 멋진 한국인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나의 꿈

하늘상 김세희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제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저는 항상 “가정을 꾸리고 성공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확히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까요? 내 꿈의 직업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종종 미래가 우리가 예측하는 것만큼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돌고래 조련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다 그 꿈이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관심을 가져온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사가 되어 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의사들과 의료 산업 종사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보았습니다. 그들은 초과 근무를 하며 탈진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저는 코로나 팬데믹 동안 제 건강 문제로 힘들어했고, 세계적인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팬데믹이 그들에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었을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저에게 신체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정신 건강에는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비관적이게 바뀌게 되었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지내고 싶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그리고 많은 다른 전문가들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팬데믹과 개인적인 경험 덕분에 저는 의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업을 계속하고 잠재적인 경로를 탐색하면서,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저에게 맞는

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며 그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질병에서 회복하도록 돕는다는 생각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되는 길은 길고 힘들며, 많은 시간의 교육, 강도 높은 훈련, 그리고 감정적 회복력이 필요합니다.

이 힘든 여정이 정말로 제 개인적인 강점과 관심사에 맞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돕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제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고, 그 결과로 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저는 지금 고등학생일 뿐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의사가 된다면 사람들의 생명이 제 손에 달려있게 됩니다.

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거를 되돌아보며 환자로서 제가 받은 혜택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도와준 사람들 덕분에 저는 훨씬 더 행복하고 강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영원히 마음가짐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의료 분야에서 제 선택지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 분야의 의사들을 따라다니며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짧은 시간 안에 의사가 되고 싶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탐구할 수 있는 의료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비록 제가 의료 분야에서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게 될지 모르지만,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행정, 공공 보건, 연구 또는 다른 여러 분야에서,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많은 기회에 대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료 분야가 다양한 재능과 관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열린 마음을 유지하

고 다양한 옵션을 탐색함으로써 제 열정과 강점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공공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경로를 찾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런 한국인

아름다운상 김이안

어린 시절, 나는 항상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들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다. 나는 길거리에서 개미를 보거나 나뭇잎을 만지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태어난 한국에서 시작되었다. 나의 부모님은 둘 다 한국분들이시고 그들의 만아들인 나를 높이 평가했다. 내가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나는 이 공동체 의식을 점점 잃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내가 미국에 머문다면 한국 학교에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물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너는 여전히 한국인이야. 우리가 한국을 방문할 때 조부모님과 어떻게 대화 할꺼니?”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왜 한국 학교에 대해 잔소리를 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서서히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지 이중 언어를 구사하거나 전통을 고수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잊지 않도록 하고 한국인으로서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부모님은 그들이 무엇을 위해 고생하시고 희생하시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

께서는 내가 한국인으로서의 삶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그 부분을 채워주시길 원하셨다. 부모님께서 자신의 언어가 아닌 다른 새로운 언어에 적응해야 했고,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힘든 일도 있으셨다. 나도 피해자였다.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바보라고 불리고 놀림도 받았다. 그 결과, 나는 수줍음이 많고 소극적인 아이가 되었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더 많은 지식을 쌓았고, 부모님께 조금 더 감사하게 되었고, 한국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한국어를 잘 구사하고 한국인의 외모를 지닌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나의 단점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어떻게 그것을 나의 장점으로 사용하는지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다. 똑똑하거나 신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장 똑똑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나 자신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유산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묻는다면, 그것은 부모님과 내가 변영하는 미래를 갖기 위해 포기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나의 헌신이기 때문이다. 나의 노력과 헌신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겠다.

나의 꿈

고운상 하준형

매일 새로운 경험과 배움으로 고등학교 생활의 막바지를 향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저만의 꿈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루



하루 너무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어떤 날은 정확한 꿈이 없다는 사실이 조금은 부담스럽고 조금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제 생활에 충실하다 보면 ‘나’ 라는 사람을 좀 더 알게 되고, 이를 통해 많이 성장하고 강해질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꿈은 제가 하고 있는 노력과 결과들을 토대로 무슨 일에서건 두려워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는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대학을 가거나, 운동선수를 꿈꾸거나, 아니면 직업 군인 또는 취업을 하는 등 자신이 꿈꾸던 삶이나 생활을 위해 모두 각자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처럼 주변을 보면 자신의 미래를 명확히 그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지만, 저는 여러가지 학교생활 및 봉사활동을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꿈을 찾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3년동안 마칭 밴드 활동은 항상 제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새벽 일찍 또는 저녁 늦게까지 진행되는 지겹고 힘든 연습들, 주말마다 치뤄지는 경기들, 선배로서 아니면 리더로서 친구들과 후배들을 챙겨야하는 등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많이 일들과 고민들을 겪을 때 마다, 이걸 왜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들었지만, 지금의 고민과 탐색이 언젠가 저만의 특별한 꿈을 만드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직까지 꿈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은 다시 말해, 나에게 여전히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나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일 뿐, 조금 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

는 제가 가진 두 문화적 배경(한국과 미국)을 강점으로 삼아, 더 넓은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에 맞는 꿈을 찾을 것입니다.

저는 매일 조금씩 나를 알아가며 성장하고 있다는 걸 의심치 않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저는 언젠가 저만의 특별한 꿈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꿈을 찾는 과정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내 이름은 발음하기 어려울까?

예쁜상 최서진

저는 미국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어 발음은 외국인들에게 매우 어렵습니다. 제 한국 이름이 학교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늘 ‘내 이름이 왜 한글로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미국식 이름이 있었다면 선생님이 내 이름을 발음할 때마다 당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몇 년이 지나서 선생님(특히 대리 선생님)이 제 한국 이름을 부르려고 할 때마다 나는 담담하게 영어 이름으로 부른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제 한국 이름이 아름답다고 처음 생각한 사람은 7학년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한국 이름의 독특한 발음이 흥미롭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올바르게 발음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했습니다. 그녀는 발음을 배운 후 제 이름의 의미도 알고 싶어했습니다. 저는 영어 선생님은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분은 제가 자유



시간에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저를 자신의 북클럽에 가입하도록 초대했습니다. 선생님 북클럽에서 태이 켈러 같은 한국의 전설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책을 읽은 후 저는 한 가지 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해야 하고, 한국어를 더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한국 문화가 세계의 급속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인기를 얻은 것은 음악, 즉 K-팝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2020년 히트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 이후 K-팝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음악 장르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또 다른 한국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는 K-드라마였습니다. 웹툰 원작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과 함께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동안 김치는 훌륭한 슈퍼푸드로 알려졌습니다. 김치를 먹어본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다른 한국 음식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제가 활동하고 있는 로봇팀에 유부초밥, 잡채, 볶음밥을 줬는데 다들 좋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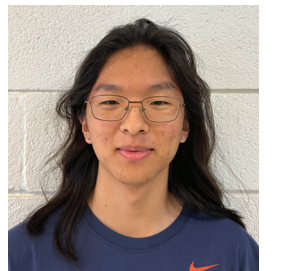
세종대학교에서는 송미현 선생님 밑에서 한국어와 전통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김장’이라는 김치를 만드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저는 또한 사물놀이, 난타, 춤과 같은 과외 활동에 참여하여 우리 나라의 문화를 배웁니다.

코로나 이후, 나는 이제 한국인이 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갖고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나니 제 이름도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NAKS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는 ‘서진’이라고 불러주세요.

나의 꿈

강솔대해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유는 세종학교의 클럽인 친구클럽과 교회 활동인 여름 성경학교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힘들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고 보람을 느끼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 무엇이든 배우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선생님이 되어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배워야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어서 자신이 있습니다. 또 선생님이 되고 싶은 중요한 이유는,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들입니다. 이 선생님들은 잘 가르쳐주시고 학생들이랑 잘 지내면서 잘 도와주는 분들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선 대학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도 훌륭한 교사가 되기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합니다. 저는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좋아하므로 선생님되고 싶습니다. 제 꿈을 이루기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자유 의 꿈

김 단

저의 꿈이 단 한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것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저에게는 자유가 많이 중



요하고 소중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이과쪽 보다는 문과쪽이랑 예체능쪽으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글쓰기, 그림, 사진 그리고 음악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해서 예전부터 제 눈은 반짝반짝 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딱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세상에 있을 짧은 시간 안에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작가, 배우, 미술가, 감독, 가수 등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친구들은 이미 자기 인생에서 정확하게 뭘 하고 싶은지를 정했는데, 아직 저만 못 정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심각할 정도로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도널드 글로버 (Donald Glover) 라는 분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눈이 또 다시 한번 반짝하면서 제 미래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 분은 작가, 배우, 감독, 가수, 코미디언까지 다하면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분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도 이분처럼 제가 살고 싶은대로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목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후회 없이, 제한 없이...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MBTI

김예원

나는 주말이면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서 방송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많이 본다. 어렸을 때에는 ‘무한도전’, ‘런닝맨’을 봤



고 요즘에는 ‘나는 솔로’, ‘나.솔.사.계.’, ‘나 혼자 산다’, ‘전지적 참견 시점’을 본다. 무한도전이나 런닝맨을 볼 때에는 다양한 색깔과 폰트의 자막을 보는 게 재미있었다. 요즘 예능 프로그램을 볼 때에는 말이 빠르기는 하지만 최대한 이해하려고 집중하면서 보고 모르는 부분은 부모님에게 여쭙볼 때도 있다. 새로 생기는 줄임말이나 한국의 나 같은 MZ 세대가 새로 만들어 사용하는 신조어는 아빠, 엄마도 인터넷으로 찾아보실 때도 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쯤부터 방송에서 “E 아니면 I”, “넌 T라 그래,” 혹은 “MBTI가 뭐예요?”라는 대화가 많아진 걸 느꼈다. 대체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영어로 된 네 글자는 뭘까 궁금해하다가 그게 MBTI라는 걸 알게 되었다. MBTI는 사람의 성격을 검사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이 검사는 사람을 16가지의 성격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다. 여러 성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방송에서 MBTI를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E(외향)인지 I(내향)인지 혹은 F(감정형)인지 T(사고형)인지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MBTI에 대해서 알고 나니 내 MBTI는 무엇일까 궁금해졌다. 인터넷에서 찾아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질문이 엄청 많았다. 나는 INFJ가 나왔다. 우리 엄마는 ESFP, 아빠는 절대 테스트를 안 하실 거라고 했다. 내가 생각한 우리 아빠는 I가 맞을 것 같다. 내 동생들은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I와 T일 것 같다. MBTI를 알고 나니 친구들과 문자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에도 “재는 T라서 저래. 혹은 재는 E라서 집에서 놀고 싶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다. 물론 그 친구들이 내 말에 공감해 주기도 하고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즐기기도 하는데 MBTI 때문에 내 머리속에 선입견이 생긴 것이다.

부모님과 MBTI 얘기를 하다가 아빠, 엄마가 어릴 적엔 혈액형으로 성격을 얘기했다고 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혈액형으로 사람을 어떻게 나뉘? 왜 한국 사람들은 상대방의 성격을 그 사람이라 칭해지기도 전에 먼저 파악하려고 할까? 아마 그 선입견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싶은 게 아닐까 싶다. MBTI가 재미있고 잘 맞는 경우가 많아서 신기할 때가 있다. 하지만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과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알파벳 몇 글자에 가두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가 직접 겪은 상대방의 모습으로 관계를 형성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나의 미래, 나의 도전

김찬영

저는 중학교 때부터 여러 가지 흥미로운 과학실험을 보는 것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실험 이면에 있는 설명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은 열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신체의 생물학적 과정과 장기 연구에 관심을 조금씩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질병과 박테리아가 어떻게 서로 작용하여 해를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화학이 이 두 분야의 이상적인 조합이라고 믿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후 이 과목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한가지 이유는 생화학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실질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험실에서 이러한 것들을 분



석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즐겁습니다. 또한 제가 관심이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저는 의학이 내용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긴 하지만 도전해 볼만한 학문이며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무언가를 배울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사들이 입는 가운이 매우 세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미국에서 저는 다양한 환자들과 만나 제가 배우고 경험한 지식으로 이 세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진정한 변화

윤수은

저의 꿈은 해마다 바뀌었고, 매년 새로운 직업에 대해 글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찾은 것 같아요. 단지 직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꿈을 쫓고 있습니다. 제게 엔지니어는 비전을 현실로 바꾸는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저에게 엔지니어링은 단순히 새로운 제품을 설계하거나 구조물을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삶을 더 쉽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 꿈은 변화를 기다리지 않고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료기술을 설계하거나, 청정 에너지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교육을 위한 도구를 만드는 등, 저는 제 기술을 사



용해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싶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제가 가진 호기심과 열정입니다. 저는 계속 질문을 던지고, 사물이 어떻게 잘 작동할수있을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을지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를 바라보고 내일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엔지니어가 되는 여정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희생을 요구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클 것입니다. 제가 내딛는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언젠가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수학과 물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며 여러 기술을 익히는 것이 제가 지금 걷고있는 계단들 입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에도 저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엔지니어가 되는 제 꿈은 단지 먼 목표가 아니라, 지금 제가 내리는 선택들을 통해 이미 조금씩 형태를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뒤돌아보았을 때, 저는 그 작은 발걸음들이 저를 제가 꿈꿔왔던 미래로 이끌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만의 미래를 창조하도록 영감을 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꿔야될 진정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꿈

한준혁

예전에는 미래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두려웠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비슷한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상상하면 답답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삶이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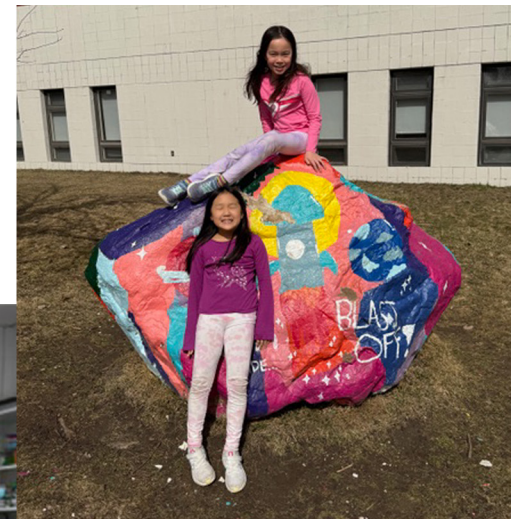
정적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 재미도 없고, 의미도 별로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라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형, 누나들이랑 얘기해보고 선생님들이 해주신 조언을 들으면서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었습니다. 누군가는 회사에 다니지만, 또 누군가는 자기만의 일을 만들기도 하고, 전혀 다른 도전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꼭 하나의 길만 있는 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해진 길’ 보다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할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비디오 게임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인공지능(AI)에도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대학 전공으로 컴퓨터공학(Computer Science)을 선택했습니다. 꼭 프로그래머나 게임 개발자가 되겠다는 건 아니지만, 이 분야를 공부하면 나중에 여러 가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입니다. 이 공부를 하면서 저한테 진짜 맞는 일을 찾고 싶습니다.
 아직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제가 진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빠르게 변하고 있고, 저도 그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컴퓨터공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언젠가는 제가 진심으로 몰입하고 즐길 수 있는 일을 찾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신입반

교사 호프 수산나

신입반 학생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죠? 수산나 선생님 입니다.
 올해 학년은 정말 빨리 지나갔지만 행복하게 같이 한국어를 배웠죠?
 이번 학년이 제 두번째 가르친 학년이기 때문에 아직도 새로운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토요일 아침마다 학교에 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려웠지만 잘했습니다.
 저는 우리 신입반 학생들이 많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름에 조금 한국어를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여름 지내세요. 화이팅~~~





내 이름은 채현이예요.
 나는 키조를 해요.
 나는 아이스 케이크도 해요.
 나는 피아노치 해요.
 내가족이 4명이에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한국에이소요.



제 이름은 이기원입니다.
 저는 브라질 주짓수 를 해요.
 저는 하마 를 좋아해요.
 저는 보라 색 을 좋아해요.
 저는 나방 을 싫어해요.



제 이름은 미나 입니다. 저는 자매
 3명이 있습니다. 저는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색은 연한 분홍색 입니다.



저는 글로리아 여요.
 저는 9살이고 4학년이에요.
 저는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요.
 저는 한국에 3번 다녀왔어요.
 저는 아빠, 엄마와 여행가는
 것을 좋아해요.



제 이름이 수지입니다. 저는 14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입니다.
 저는 독서 읽는 것과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피겨 스케이트를
 탑니다. 플루트를 연주합니다.
 저는 모의 재판 팀 멤버입니다.



제 이름이 헬렌이예요.
 저는 음식 먹기를 좋아해요.
 저는 십일살이예요.
 저는 언니 1명이있어요.
 제 키가 148센티미터예요.



종달새반

1학기 교사 노희정

미국에 온 첫 해, 처음으로 세종학교 선생님이 되어 만난 오드리와 실라를 저는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BTS 정국을 좋아하고, 김치찌개, 삼겹살, 소주도 좋아하는 오드리, 그리고 한국 남편과 결혼했고 이제 막 돌을 넘긴 어린 딸을 남편에게 맡기고 매주 토요일 마다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실라.

외국에 살면 애국자가 된다고 했던가요. 오드리와 실라가 보여준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함께 한글을 공부하고, 한국의 가요를 들어보고, 송편을 먹고, 김장을 해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한국, 미국, 터키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문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2학기에는 담당하게 된 반이 변경되어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한글과 한국 문화를 즐기고 사랑해줄 많은 분들이 종달새반으로 오셨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2학기 교사 황선미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성인반에서 한글을 가르치게 되어 설렘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학생들과 함께 한글을 배우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이자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이해하는 첫걸음이기 에, 그 가치를 온전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한글의 아름다움과 과학적인 원리를 함께 탐구하며 한국 문화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위한 마음으로 한글을 창제하셨듯, 저도 한글을 배우고 자 하는 분들의 따뜻한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학생 한 분 한 분이 한글이라는 다리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만나고, 배움이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이름은 실라 데니즈예요. 저는 터키 사람입니다. 저는 일본어를 전공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저는 남편과 딸과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말을 정말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드리예요. 한국 이름은 윤나비입니다. 한국의 음악과 BTS는 저에게 한국어를 배우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어 공부 여정은 저를 사람으로서 성장하게 했고 많은 친구를 사귀게 했습니다. 저는 언어와 문화에 대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한국어와 관련된 직업을 추구하고 싶은데, 제가 매우 열정을 갖게 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나간 과거의 어떤 순간이나 장소, 상황을 기억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집에서 남편과 떡볶이를 먹다가 문득 초등학교 6학년 때 방과 후 학교 앞 문방구에서 친구들과 떡볶이와 어묵 국물을 먹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밀떡에 쏘옥 벤 떡볶이 양념을 먹다 보니 문방구 아주머니가 개수를 세며 주시던 떡볶이 그리고 좁은 공간에 친구들과 즐겁게 먹던 장면이 생각나 혼자 웃었습니다. 또 하루는 저희 집 큰 아이와 쇼핑을 하러 몰에 갔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한국 갔을 때 이모 머리카락에서 나던 삼푸 냄새가 나. 그때 이모랑 배스킨라빈스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갔었는데..”

제가 먹었던 떡볶이의 맛이나 큰 아이가 맡았던 삼푸 향은 바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합니다. 친구들과 수다 떨던 그 순간과 이모와 물루랄라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던 발걸음을 떠올리게 하죠.

저에겐 음악이 항상 그런 타임머신입니다. H.O.T 노래를 들으면 학원은 스킵하고 잠실 주경기장에서 흰색 우비에 흰색 풍선을 흔들며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던 제가 생각이 나고 머라이어 캐리 노래를 들으면 중학교 기악 시험에 머라이어 캐리 노래를 피아노를 치던 순간이 떠오르고 쇼팽의 한 에튀드를 들을 때면 초등학교 피아노 콩쿠르에 나가서 좌절을 맛보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대부분 이불킥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래도 예전 추억들을 회상하다 보면 그 순간 즐겁고 그립기도 하고 행복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 이 노래는 내가 동요대회 때 부르고 트로피 받았던 노래인데.” 혹은 “이 노래는 세종학교에서 리코더로 연주했었는데 너무 어려웠어!” 또는 “이 노래 들으니까 그때 배웠던 율동이 생각나! 나 그때 2학년이었던 것 같아” 세종학교에서 음악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이 살면서 어느 한순간에 세종학교에서 배웠던 노래나 율동, 리코더 연주를 기억하는 순간이 생기길 바라봅니다.

2024-25 학년도에도 열심히 음악수업으로 달려와 준 토끼, 나비, 개나리, 매화, 난초, 무궁화, 장미반 친구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9월에 학기를 시작한 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학기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올해는 어떤 아이들과 어떤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슴이 벅찼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입시 준비로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도 수업에 참여할 때마다 밝고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준 하늘반 학생들, 그리고 처음으로 학교 생활을 시작하며 서툰 가위질과 선 긋기를 배우는 귀여운 토끼반 학생들까지, 이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은 늘 기쁨과 보람으로 가득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4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1년 동안 아이들이 그림 솜씨와 가위질 실력을 점점 늘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선생님으로서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특히 토끼반 아이들이 “선생님!” 하고 외치며 미술반으로 달려오거나, 완성한 작품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면, 준비 과정에서 느꼈던 고단함이 모두 사라지곤 했습니다.

또한, 일 년 중 단 두 번뿐인 수업이지만,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과 만나며 그들의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은 저에게도 특별한 경험과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아이들이 미술 시간이 힐링이 된다는 말을 전해줄 때, 그리고 각자의 독창적인 표현 방식으로 열정적으로 작품을 완성해내는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학기를 마무리하며 돌아보니, 부족했던 점들에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한 해 동안 미술 수업을 즐겁게 참여해 준 세종학교 학생들과 부모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큰 도움을 준 봉사자 학생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 한 해 아이들과 나눈 소중한 순간들이 오래도록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새로운 도전을 함께하며 또 다른 멋진 시간을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2024-2025 학년은 K-pop 댄스로 아이들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한 첫해입니다.

말썽꾸러기 아들 둘의 엄마인 저는 아이들과 하는 수업에 충만한 자신감을 가지고 첫 수업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런데, 첫 수업에서 저의 이 자신감이 얼마나 오만했던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와~ 체육관이다” 하며 친구들과 뛰기 시작하고, 얼마나 신이 났는지 “친구들 모이세요” 라는 저의 말은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 모습조차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생각, 성격, 에너지가 각기 다른 아이들과 함께 해나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니다. 한 주 한 주가 지날수록, 아이들은 점점 성장했고, 신나게 춤추며 환하게 웃고 즐기는 아이들 모습에 감동합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배우고 싶은 댄스를 저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동안 배워왔던 노래들을 틀어 주면 제법 잘해나갑니다. 안무를 다 외웠다면 시범을 보이지 말라고 하고, 자신감 넘치는 귀여운 표정까지, 부족한 저에 비해 훨씬 더 잘해나가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 하는 여정은 정말 멋진 일이었습니다. 두 팔 벌려 저에게 달려오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모습이 저에게 큰 감동으로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K-pop을 통해 한국 문화에 자긍심을 갖고, 음악에 맞춰 자신을 표현하듯, 모든 일에 마음껏 자신의 모습을 멋지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권도

황희찬, 황희민

세종학교에서 태권도 수업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렀지만, 아이들과 함께 부딪히고 웃으며 수업을 만들어가던 시간들이 저에게도 소중한 재미가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에 함께했던 아이들과 다시 수업을 시작하며 아이들이 이미 기본기를 익힌 덕분에 수업이 훨씬 수월해졌고, 동작 하나하나에 자신감도 생겼다고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주먹 쥐는 법도 어색해하던 아이들이 이젠 동작의 순서와 의미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모습을 보며, 성장한 아이들을 보고 보람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작년에 쌓아 온 경험이 아이들에게는 태권도의 기초가 되었고, 저에게는 수업을 준비하고 이끌어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올해는 더 높은 수준의 수련도 시도할 수 있었고,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성장해가는 시간을 통해, 지도자로서의 보람을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건강하고 재미있는 태권도 수업을 이어가며, 더 많은 발전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물놀이/난타

교사 Torey Powers

My name is Torey, and I am the samulnori and nanta teacher at Saejong. My students learn how to play traditional Korean drums and rhythms. Even after nearly a decade of teaching at Saejong School, my students still find ways to surprise me, both with their creativity and their music.

It is an honor to teach such hardworking and caring students. Being able to see and hear the results of their effort is still rewarding as a teacher, even after all this time.



졸업을 앞두고....



김이안

그동안 내가 겪은 모든 것을 통해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2021년도에 9학년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그 후 바로 세종 학교를 시작했다. 사람들은 마스크를 썼고, 소독약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으며, 컴퓨터를 주 교육 방법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해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였다.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협동하며 배워야 하는 곳인 학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우리는 화면으로 매일 영상을 보며 수업을 했고, 서로 소통하지 못하며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지내야만 했다. 우리는 빈 껍질처럼 느껴지는 학교생활이 힘들고 지겨워졌다. 그러나 2025년, 전염병이 지나갔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할 만큼 새로운 해이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 규범은 사라졌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관점이었다. 이 4년 동안, 나는 글을 쓰는 법을 배웠고,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웠고, 책 읽는 법을 배웠다. 나는 모든 것에 자신이 있었지만 시험에 떨어지는 경험도 했고, 간단한 문제에 대해 스트레스도 받았고, 해결해야 할 일을 미루며 지내고 있기도 했었다. 하지만 나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고등학교에서 배운 한 가지는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이다. 괜찮지 않은 것은 포기하는 것이다. 해결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냥 내버려두면 나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의 교육에 대한 이러한 작은 투자는 큰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알았다. 내 인생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나는 부모님께는 나의 미래를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해 주시고 끝없이 관심을 쏟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선생님들께는 여러 좋은 경험과 해결책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내가 끝없는 노력들로 내 앞에 놓인 장애물을 무사히 넘어가게 도와주고, 실패가 진정한 성공으로 가는 나의 길을 비추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나는 이 교훈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하며 내 멋진 미래로 씩씩하게 나아갈 것이다.

세종학교를 졸업하며



윤지환

2012년 9월 처음으로 세종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누나를 ride할때마다 같이 갔지만 처음으로 수업을 받게 되었을때 선생님, 친구들 모든것이 새로웠습니다.
토요일마다 학교에와서 한국어와 여러러가지들을 배우면서 저의 정체성도 커졌습니다.
Aaron 이란 이름대신 지환이란 이름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장래에 대한 꿈을 생각해볼때 영화감독이 되고 싶은 마음도 한국감독들에 대해 많은 관심도 세종학교에서 배운 많은것들이 큰영향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친구들과 학교는 달라도 웃고 떠드는 토요일이 참 좋았습니다
키가 작았던 제가 이제 졸업을 하면서 항상 좋은것을 말해주시고 가르쳐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누나와 저를 16년간 support 해주신 부모님께도 감사합니다.
세종학교가 있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Kpop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볼수 있는것 같습니다.
힘들때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세종에서 좋은경험과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세종학교를 졸업하며



한준혁

16년 전, 저는 형과 함께 처음으로 세종학교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지난 14년 동안, 세종학교는 제 인생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해 왔습니다. 이제 졸업을 맞이하며, 그 긴 여정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세종학교는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건물도 바뀌었고, 선생님도 해마다 달라졌지만, 하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곳에서 만든 소중한 추억들입니다.

간식 시간마다 학부모님들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한국 음식을 함께 나누며,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맛과 문화를 배웠습니다. 한국 동요를 배우고 대회에 참가하며, 글짓기 대회에도 나가면서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잊을 수 없는 기억은 3학년 때 처음으로 세종 골든벨을 울렸던 순간입니다. 골든벨을 울리던 그 짜릿한 순간, 그리고 상을 받았을 때 느꼈던 자부심은 제 인생의 특별한 장면으로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입니다.

주말의 많은 시간을 세종학교에 할애했고, 아침 일찍 일어나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었으며, 한국어를 읽고 쓰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들이 따뜻한 추억이 되어 제 마음속에 소중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와 함께 문화와 언어를 나누고 응원해 주셨던 선생님들과 어머니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Korean American 으로서, 그리고 세종학교 졸업생으로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클럽

친구클럽에서는 세종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들(8~12학년)이 한국어 공부가 필요한 어린 친구들(토끼반~솔반)의 한국어 공부 및 숙제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세종학교 숙제를 도와 주고 한국어로 된 동화책을 읽어 주기도 합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책을 같이 읽기도 하고 수학 문제를 같이 풀기도 합니다. 같이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세종학교에서는 학년별로 한국어 공부를 하지만 친구클럽에서는 학년에 상관없이 모두 함께 한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언니, 오빠, 누나, 형들과 함께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친구클럽은 세종 학교 수업이 있는 매주 금요일 오후, 두 곳의 도서관에서 만나 모임을 갖습니다.

2025-26학년도에도 친구클럽에서 많은 동생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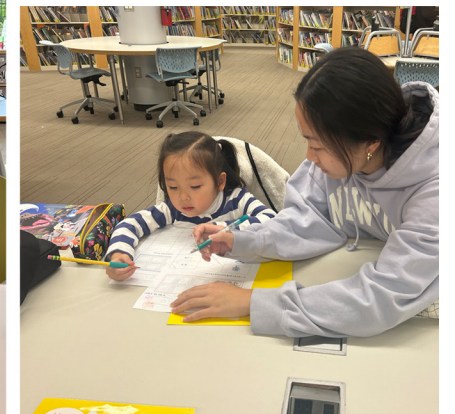
*Rochester Hills Public Library - 5시부터 6시까지

(500 Olde Towne Rd. Rochester, MI 48307)

*Novi Public Library - 4:45부터 5:45까지

(45255 W 10Mile Rd. Novi, MI 48375)

**2025~26학년도 친구클럽 첫 모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개학 후에 담임 선생님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K-Rise

안녕하세요. 저는 K-Rise의 회장 김세희입니다.

K-Rise는 주로 K-pop 댄스에 중점을 두고 최종 공연을 위해 공연하는 자발적인 학생 댄스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K-pop에 관심이 있고 현대 한국 음악을 춤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올해는 K-Rise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운영된 해입니다. 연령대는 6학년부터 성인 클래스까지 다양합니다. 춤 경험은 필요 없고,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춤을 잘 추든 못 추든 상관없고 오로지 우리 문화를 대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K-Rise 멤버들은 방과 후에 모여서 연습하고 때때로 스튜디오에서도 연습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감을 키우며, 서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룹을 다시 만드는 것은 도전이었고, 특히 학기가 한창 진행 중일 때 더욱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그룹을 운영하고 공연을 하려면 조직하고 리허설하고 준비할 시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회장으로서 저는 많은 일을 맡았습니다. 저는 리허설 일정을 잡고, 공연 일정을 짜고, 기금 모금 행사를 진행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올해, 그 그룹은 BLACKPINK의 DDU-DU DDU-DU를 공연했습니다. 모든 멤버는 각자 역할이 부여되었고, 자기 시간에 맞춰 춤을 배우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춤을 연습하고, 대형을 구성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애물이 닥쳤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외에도 그룹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모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룹의 멤버들이 부끄러워하고 춤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리허설이 많아질수록 그들은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그룹으로서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때 수줍고 내성적이었던 학생들이 이제는 다른 멤버들을 격려하고 자신의 재능을 주저 없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웃고, 유대감을 형성하고, 가까워지며, 개인과 그룹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첫 공연을 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뤘는지 깨달았습니다. 늦은 오후, 자유 시간을 희생하고 조직한 모든 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춤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의 얼굴에 미소를 가져다주었으며, 현대 한국 음악을 강하게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K-Rise를 부흥시키면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단순히 조직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영감을 주는 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내 그룹이 지속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열정과 목적이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룹원들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과 그들과 쌓은 유대감에 대해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제29회 동요 부르기 대회

- 대상: 최해나(매화반)
금상: 길이안(난초반), 임이든(개나리반)
은상: 심아현, 김라엘(난초반), 로빈 라이트(개나리반), 김앤슬리(나비반)
동상: 함예서(매화반), 김하나, 김려준(난초반), 김하윤, 김희영, 이로운(개나리반)
장려상: 김해나(매화반), 하연서, 박리나, 이믿음, 최지아(난초반),
이온유, 차윤우(나비반), 박은비, 김연우, 이은하(개나리반)
노력상: 김다누, 김시아, 김제인, 김주빈, 손하윤, 윤새별, 이소운, 이지유, 이하준,
임리안, 임아론, 최유진(토끼반)
권나연, 길유안, 김라운, 김로아, 김리하, 김지은, 김태성, 배서현,
본그레이버 레아, 지원 아로나스, 함주호, 황운호(나비반)
김선준, 손운재, 심서현, 이민혁, 이선, 이현(개나리반)
김하니, 신윤아, 임리엘, 황윤아(매화반)
김시원, 백하린, 에릭 라이트(난초반)

제33회 글짓기 대회

- 세종대상: 윤수은(하늘반)
무궁화반: 최혜서(무궁화반), 박태양(아름다운상), 박수빈(고운상),
배설아, 남호정(예쁜상)
장미반: 조수민(장미상), 최성우(아름다운상), 박서연(고운상), 유가현(예쁜상)
해반: 이래나(해상), 오은수(아름다운상), 최서운(고운상), 이은서(예쁜상)
솔반: 이라엘(솔상), 최예린, 양지훈(아름다운상), 이강(고운상), 김연서, 김이준(예쁜상)
달반: 이연서(달상), 박다연(아름다운상), 서여원(고운상), 박나연(예쁜상)
별반: 박연서(별상), 김이안(아름다운상), 박재연, 최성민(고운상), 장아운(예쁜상)
하늘반: 김세희(하늘상), 김이안(아름다운상), 하준형(고운상), 최서진(예쁜상)

제18회 세종 골든벨

- 난초반: 백하린
무궁화반: 배설아
장미반: 최성우
해반: 최서운
솔반: 이라엘
달반: 박나연
별반: 김이안
하늘반: 김이안



2025년 이야기 대회

- 세종대상: (하늘반) 최서진
1등: 유년부 (개나리반)이로운 / 초등부 (난초반)백하린 / 중고등부 (해반)최서운
2등: 유년부 (나비반)권나연 / 초등부 (무궁화반)최혜서
3등: 유년부 (개나리반)임이든 / 초등부 (장미반)유가현
노력상: (토끼반)김제인, 박진, 손지오, 손하윤, 윤새별
(나비반)김라운, 김앤슬리, 박이든
(개나리반)김연우, 손운재

사진모음



사진모음



사진모음



사진모음





